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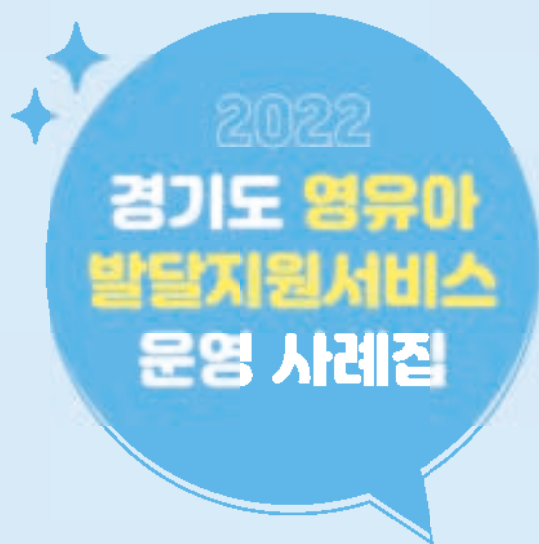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2022-17

★ 2022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운영 사례집 ★

★ 2022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운영 사례집





센터장 인사말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는 걸까요?”



영유아기는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발달의 양상과 속도는 모두 다르지만

전형적인 발달 수준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인다면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통해

발달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요인에 의한 기관 적응의 어려움 또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발달이나 기관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에 도움을 주고자

2021년부터 경기도 내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돕는

‘경기도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발달지원 사례의 일부를 모아

사례집을 엮었습니다.

본 사례집이 발달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어린이집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과 사업담당자께 감사드리며,

기꺼이 소감문을 보내주신 부모님과 보육교직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홍 원 자

I.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

1. 사업 개요	05
2. 사업 현황	08

II. 영유아 상담사례

1. 또래관계가 어렵고 혼자 놀이하는 아이	11
2. 5살!! 처음 사회생활 적응기	14
3. 그치지 않는 울음, 식사와 낮잠거부	17
4. 상호작용이 어렵고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 아이	19
5.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	22
6. 어린이집 활동 시 행동이 느리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아이	25
7. 언어 지연 및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	28
8. 조용히 혼자 노는 아이(다문화 가정)	34
9.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40
10.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꼭 필요해요!!	43
11. 다문화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46
12. 언어표현이 어려운 아이	49
13.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52
14. 울면서 등원하고 울다가 하원하는 아이	55
15.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요	58
16.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달팽이	60
17. 행동이 더디고 주의집중이 어려운 아이	64
18. 욕하고 때리는 아이	68
19. 친구와 어울리기가 어려워요(외국인 가정)	73

2022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운영 사례집

01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



-
1. 사업 개요
 2. 사업 현황
-

I.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

1.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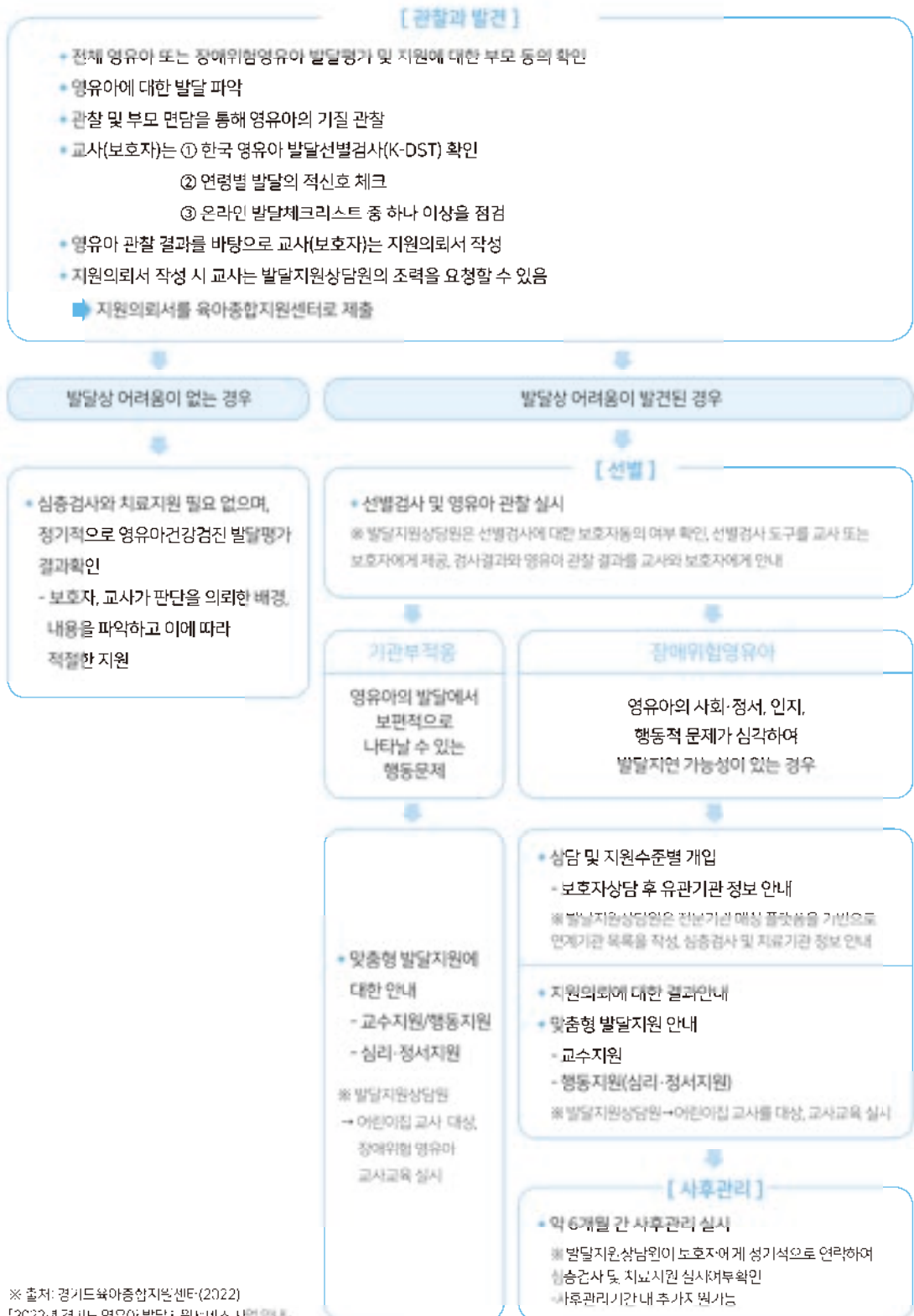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업명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 경기도에서는 제3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의 정책과제로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에 장애위험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명시함. - 장애위험 영유아 수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 호소가 증가함. 이에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2. 목적 -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으로 장애 예방 및 장애의 최소화를 꾀하고자 함. - 사업을 통해 영유아 발달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위험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의 통합 지원을 통해 보육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 대상	경기도내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
추진 기간	2022. 1월~ 12월





-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사업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또는 가정양육 영유아 중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의 추진체계는 경기도 및 시군이 운영비와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업실적관리 및 시군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며,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주체로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담당한다.
- 사업내용은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가정양육 영유아의 부모나 영유아가 재원중인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센터의 발달지원상담원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양육방법과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치료를 연계하기도 한다.

-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의 이용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출처: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2022)
「2022년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안내」

2. 사업 현황

가. 사업신청 영유아 현황

경기도내 31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한 영유아수는 총 2,426명(2022.1월~11월말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 사업을 신청한 영유아수는 1,594명, 가정에서 사업을 신청한 영유아수는 832명이다.

[표 1] 사업신청 영유아 현황(2022.1.1.~11.30. 기준)

(단위: 명)

구분	2022년(1~11월)
어린이집 신청 영유아 수	1,594
가정 신청 영유아 수	832
총계	2,426

나. 신청 영유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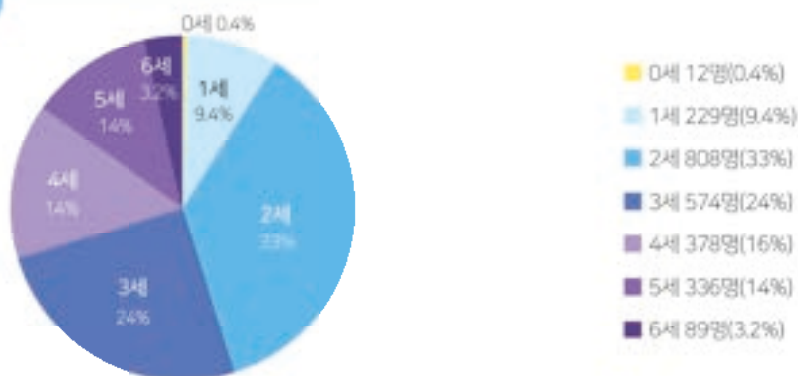
사업신청 영유아 총 2,462명에 대한 연령별 분포는 표2와 같다. 사업신청 영유아 중 만 2세와 3세는 1,382명으로, 전체 신청영유아의 57%를 차지한다. 이에 발달의 이상징후를 처음 발견하게 되는 연령은 주로 만 2~3세경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 사업신청 영유아 연령별 현황(2022.1.1.~11.30. 기준)

(단위: 명, %)

구분	누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신청 영유아 수	2,426	12	229	808	574	378	336	89
비율	100	0.4	9.4	33	24	16	14	3.2

연령별 현황



다. 치료연계 현황(2022.1.1.~11.30. 기준)

- 전체 사업신청 영유아(2,426명) 중 단순종결 사례는 1,546명(약 64%)이고, 치료연계 사례는 843명(약 35%)이며, 진행 중인 사례는 37명이다.
- 치료연계 영유아 843명에 대한 주요 문제유형은 정서 관련 문제가 237명(28%), 언어 및 발달지연 관련 문제가 606명(7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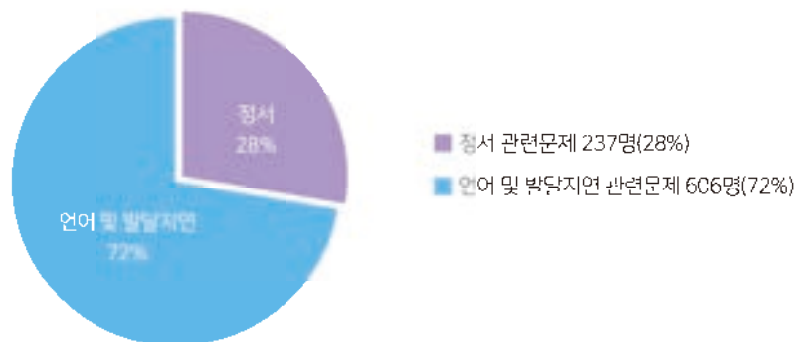
[표 3] 치료연계 현황(2022.1.1.~10.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단순종결	치료연계	진행 중
어린이집 신청 영유아 수	1,594	1,069	500	25
가정 신청 영유아 수	832	477	343	12
총계	2,426	1,546	843	37

1) 단순종결, 치료연계, 진행중

치료연계 영유아 주요 문제유형(총 843명)



- 1) 단순종결: 영유아 발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사업담당자의 맞춤형 지원으로 종결되는 사례
 치료연계: 영유아의 사회·정서, 인지, 행동적 문제가 심각하여 발달지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전문기관으로 의뢰가 필요한 사례로, 보호사상담 후 유관기관 정보안내를 한 사례
 진행 중: 사업신청 후 치료연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선별검사가 진행중인 사례

2022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운영 사례집



영유아 상담사례



01 또래관계가 어렵고 혼자 놀이하는 아이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조OO (만3세, 여, 어린이집 재원)

사업신청
경 위

-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권유로 아동의 부모가 신청함.
-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생활모습과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해 궁금해 함.

주 호 소 문 제

- 어린이집에서 또래놀이의 빈도가 적고 혼잣말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대답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은 편임. 또한 엉뚱한 답을 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교실을 배회하는 등 주로 혼자 놀이를 함. 소변을 참는 모습을 보임.
- 가정에서는 화나 짜증이 심한 편임.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및 배경

- 가족관계: 부모, 아동(외동)
- 가족배경: 맞벌이 가정, 주 양육자(모)

아동의 발달력

- 발달 상 큰 어려움은 없었음. 언어발달이 빠른 편임.
- 기관생활: 돌 전부터 가정어린이집에 다녔으며,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은 2022년 3월에 입소하였고, 기존 재원생이 많은 어린이집이어서 적응에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

외양 및
행동관찰

- 아동 관찰: 교실을 배회하고 놀이를 하지 않음. 특히 교사의 표정을 계속 살피며 "선생님, 밥 언제 먹어요?", "선생님, 물 먹고 와도 돼요?" 등의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교사의 관심을 끄는 모습이 관찰됨. 교사의 주변을 계속 배회함.

선별검사
결과

- K-CDI 검사 결과: 정상발달 범위로 나타남.
- 모의 K-PSI-4 검사 결과: 생활스트레스 영역이 높은 수준이나 기타 영역은 적정 스트레스 수준을 보임.
- 모의 PAT 검사 결과: 비일관성 영역이 높게 나타남.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성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발달지연의 문제는 없어 보이나 또래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놀잇감 선택 및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교실을 배회함. 모(母)의 비밀관적 양육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서적 유대감 형성 및 새로운 어린이집에 대해 낯설음이 주 원인으로 추측됨. 교사와 아동, 또래 간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나타나는 일시적 부적응으로 보임.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아동의 빠른 언어발달로 의사소통이 용이하며, 모의 아동에 대한 애정과 양육에 대한 관심 및 의지는 높은 편임. 담임교사 또한 아동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높음.
- 위험요인: 아동의 미디어 노출 시간이 길며, 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 부족으로 불안정 애착이 의심됨. 모-아의 놀이상황 등에서 모는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고, 모와 아동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음.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모: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모의 상황과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해 심리상담을 지원 함, 양육태도검사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양육방법을 코칭함으로써 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증진함. 모의 정서적 감정조절을 도움.
- 담임교사: 부적응 영유아 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통해 심리적 지원함. 부모상담기술에 대한 코칭 및 아동에게 필요한 교수지원 방법을 안내함. 담임교사와의 애착형성 및 아동의 새로운 기관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아동의 원활한 또래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

상담성과

- 일상생활 변화: 언어발달이 빠른 아동의 강점을 살려 퇴근 후 모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동이 미디어를 시청하도록 했던 방식을 아동도 함께 저녁식사 준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함으로써 아동의 미디어 노출 시간을 줄이고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함.
- 모-아 관계 형성: 아동이 왜 화가 났는지, 왜 기분이 상했는지 이유를 묻는 공감적 접근 및 아동의 부정적 감정 수용을 통해 아동으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심리정서적 안정과 모-아 간 애착의 재형성을 도움.
- 교사의 변화: 정서적 공감과 심리적 지지를 통해 상담 전보다 편안한 모습을 보임. 아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태도가 나타남. 아동이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자신의 욕구를 편안하게 표현하는 점, 아동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했을 때에도 거부 행동 없이 교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등 교사-아동 간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됨.

- 아동의 행동 변화: 두 달 후 재방문 시, 아동은 또래들과 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요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교사와 아동의 꾸준한 소통으로 “소변 참기” 행동이 사라짐. 혼잣말을 하거나 멍한 표정을 짓는 행동의 빈도가 현저히 줄어듦.

이탈 후기



어린이집 이탈 후기

원장님을 통해 처음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징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전문가의 관찰과 면담이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아동의 부모님과 교사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지원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학기 초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유아가 있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였다. 약속한 날짜에 방문한 선생님께서 자연스럽게 유아들 속에 스며들어 해당 유아의 놀이 모습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였다.

OO이는 또래와 어울리지 않고 주로 혼자 놀이하는 모습이고, 혼자 놀이하면서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다. 갑자기 교실을 배회하며 혼잣말을 하거나 느닷없는 웃음을 짓기도 하였다. OO이의 일상 모습을 관찰한 상담사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사와의 면담도 밀도 있게 진행되었다. 이후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도 상담이 진행되었고, 가정에서의 지나친 유튜브 사용, 유아의 자주성을 통제하는 억압적인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함을 이야기 나누고 함께 노력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됨으로써 첫 번째, 유아를 대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두 번째, 상담사와의 소통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아에게 맞춤 보육이 제공됨으로써 OO이의 혼잣말과 느닷없이 짓던 웃음이 거의 보이지 않고, 또래와 어울리려는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소통하는 놀이를 하며 상대방에게 질문을 건네기도 하고, 친구의 물음에 적절한 말을 찾아 대답을 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아직 모든 행동이 해소되거나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 방향으로 뚜렷한 개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OO이의 생활이 더욱 기대가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이라는 보육 현장에 꼭 필요한 실질적 도움은 바로 이러한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가장 먼저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다.



02 5살!! 처음 사회생활 적응기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임00 (만2세, 여, 어린이집 재원)

사업신청
경 위

- 모가 아동이 사회성 및 언어발달 등이 또래에 비해 지연된 것으로 느껴져 현재 아동의 발달상황을 체크해 보고 교사-아동 간 관계 형성이 어떤지 궁금해서 본 사업을 신청함.

주 호 소 문 제

-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어린이집 적응을 힘들어함.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부모, 외조부모, 아동

아동의 발달력

- 모는 임신 중 조산기로 인해 35주에 아동을 2.6kg로 작게 출산하였음.
- 출산 후 실시한 각종 신생아발달검사에는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만 24개월까지 일반적인 발달 형태를 보였음.
- 2살이 되어도 아동이 전혀 말을 하지 않아 걱정은 했지만 병원 방문이나 치료 등은 하지 않았음.
- 코로나19로 불안해 모는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으며, 이에 아동은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함.
- 아이 양육에 부(父)와 조부모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모가 거의 혼자 아동을 양육했다고 함.

외양 및 행동관찰

- 아동과 모, 조부모가 상담진행을 위해 센터 상담실을 방문함.
- 아동의 외양: 머리를 하나로 묶고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분홍색 반팔에 갈색 바지를 입고 있었음. 키와 몸무게는 만 2세 평균적인 모습이었음.
- 발달지원상담원과의 첫 대면: 모, 조모와 함께 상담실로 입실한 아동에게 발달지원상담원이 반갑다는 표현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으나 아동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책상에 놓여진 장난감에만 관심을 보임.

	• 아동의 행동 관찰: 아동은 장난감 뚜껑에 모의 손을 끌고 가져가더니 “으으잉”, “아이”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로 웅얼이 수준으로 표현함. 요구사항을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손을 뻗는 행동으로 표현함. 또한 아동은 자신이 흥미가 있는 장난감으로 놀이 시 5-6분 정도는 착석을 유지함. 그러나 대부분의 장난감이나 사물을 모나 조모와 상호작용 없이 혼자 탐색하고 놀이시간의 대부분을 모나 조모의 무릎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냄.
선별검사 결과	• 아동은 사회성, 자조행동, 대-소근육 운동, 언어이해, 표현언어, 글자, 숫자 등 8개 발달의 모든 요인에서 경계선 이하로 나타남. 이에 연령수준에 비해 발달의 전 영역에서 발달지연으로 판단됨.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아동: 전반적인 발달지연으로 보이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언어이해와 표현언어가 연령에 비해 현저히 지연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많은 어려움을 보임. • 모: 아이에 대한 민감도와 인내심이 부족하고,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짐. 또한 모는 불안이 높은 편으로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로 아동을 양육하였음. 이에 아동이 또래와 어울려 놀이하는 경험이 거의 없었고, 연령에 적합한 자조기술을 익히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모는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양육방법으로 변화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를 보임. • 위험요인: 모는 높은 불안으로 인해 과잉보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극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모: 아동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돕는 양육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함. 아동의 자조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모가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기다려줌. • 아동: 모의 모델링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숟가락 잡기, 양말 스스로 신기 등 혼자 하려는 힘을 기름. • 치료연계: 선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위해 아동의 발달을 도와 줄 수 있는 상담·치료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지역 내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함.

상담성과

- 아동은 선별검사 결과 또래에 비해 1년 정도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아동의 문제행동과 아동 연령에 맞는 발달수준을 모에게 설명함으로써 모가 아동의 현재 발달수준과 문제행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
- 모의 변화: 모가 아동의 기질과 성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짐.
- 아동의 변화: 모의 아동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모가 아동의 마음을 읽어주고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둔자 아동은 정서적으로 편안해 하고 칭얼거리는 횟수가 전보다 줄어 들었음.
- 치료연계 결과: 아동의 발달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는 발달센터 및 병원 정보를 제공하여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고, 사후관리(유선상담, 실시간 온라인 상담 등)를 통해 아동을 지켜본 결과 4개월이 지난 현재 발달지연의 폭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함.

이름 쓰기



보호자 이름 쓰기

안녕하세요. 저는 귀염둥이 5살 딸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가정보육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어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또래에 비해 많이 늦다는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지원서비스를 알게 되어 우리아이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지원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나니 “내가 많이 늦었구나, 우리 아이를 너무 몰랐구나” 하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져야 우리아이도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상담을 통해 배웠습니다.

올 초에 다니던 원은 아쉽게도 적응도 어렵고 아이가 힘들어해서 그만두고, 가정보육을 하면서 배운대로 조금씩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저까지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린이집을 더 늦게 보내면 아이가 적응하는데 힘들어질까 봐 아이한테 맞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이랑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 등원시키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부모교육도 찾아서 듣고 새로운 일상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발달지원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저와 아이 우리 가족이 모두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3 그치지 않는 울음, 식사와 낮잠거부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최00 (만3세, 남, 어린이집 신규입학)

사립신청
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호자 동의 후 신청함.

주호소 문제

-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8주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사와 낮잠을 거부하고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있는 것에 대해 부모의 걱정이 큼.
- 어린이집에서 큰소리의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 교사의 어려움이 큼.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부(외국 장기 출장이 잦음), 모(둘째 출산 후 재취업 준비 중), 동생(10개월, 여)

아동의 발달력

- 부모 보고에 의하면 28주에 1.6Kg로 조산하였다고 함.(신체적 활동은 원활한 편임)
- 생후 2년간 아빠의 외국출장으로 친정부모와 함께 거주함.
- 새로운 장소나 낯선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혼자 놀기를 즐기며 편식이 심하고 씹기를 싫어함.

선별검사
결과

- K-CDI 결과: 전체발달 2-9 / 모든 하위영역 정상수준
- K-TABS 결과: 전체수준 정상 / 고립행동 잠재위험
- CIBT 결과: 전체수준 보통 / 사회적 상호작용수준 낮음

사례
개념화

-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부모와 교사의 보고를 종합해 보았을 때, 아동의 기질적인 예민함이 기관부적응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임.
- 1)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부모에 의하면 대가성 조건이 따를 때 협상이 가능한 인지적 수준을 보이고, 가정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활동을 스스로 한다고 보고함.

- 위험요인: 부모 보고검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 보고에서는 드러나는 아동의 예민한 기질 및 발달에 대해 부모의 이해가 부족함.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정서적 접근이 서툰 편임.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모: 아동의 발달능력을 이해함. 현재 아동의 발달능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아동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민감성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함.

상담성과

- 모의 변화: 모의 기대수준을 아동의 발달능력에 맞게 조절하여 아이와 상호작용에 적용하기 시작함.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정서에 공감하게 됨.

이름 쓰기



보호자 이름 쓰기

가정에서는 문제를 많이 느끼지 못하다가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래집단 속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부분에 어려움과 언어지연 관련해서도 고민이 되어 영유아발달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상담 진행 초기에는 그동안 부모로서 아이에게 너무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으로 반성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 어린이집 생활 이전에 가정에서의 관심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아이와 눈맞춤 그리고 이해하고 기다려 주기 등 실천 가능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혼자서는 어렵고 힘든 육아였는데 세심하고 현실적인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실천해 보니 아이의 행동과 표정이 밝아지고 언어도 많이 늘었다. 상담한 지 2개월이 훌쩍 넘은 지금 아이와 주 양육자인 본인을 돌아보게 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상담이 아이와의 관계 개선에 많이 도움 되었다. 상담받기 전에 하던 것처럼 행동하려다가도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아이를 대할 때 한 번 더 바라보고 조금 참고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밝은 모습으로 엄마 곁에서, 어린이집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부분인지, 관심과 사랑의 결과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어울리고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부분도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으로 고민이 해결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이의 관심도와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양육태도를 유지하며 아이와 엄마가 함께 커나갈 것이다. 상담하는 과정 속에 발달지원상담원의 위로와 조언이 엄청난 자극과 위안으로 다가와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매일 비슷한 일상 중 구체적인 상황에 아이 마음과 부모 마음에 대해 상담 받으면서 매일 다른 일상임을 알게 되어 육아에 큰 힘이 되었다.



04 상호작용이 어렵고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 아이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박OO (만3세, 남, 어린이집 재원)

사입신청
경 위 • 어린이집에서 올려주는 사진에서 혼자 놀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래 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모에 의해 의뢰되었음.

주호소 문제 • 어린이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불안한 모습을 보임.
• 활동 시 때때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임.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 부는 출장이 잦아 지방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 1-2회 가정에 올라옴.
• 딸벌이로 모가 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임.

아동의 발달력 •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행동 특성을 보여 병원에서 발달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ADHD)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음.
• 또래 수준에 비교하여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부족함.
• 현재 2021년 11월부터 언어치료를 받고 있음.

외양 및 행동관찰

- 아동 외양: 또래보다 다소 왜소한 체형을 지니고 있음.
- 아동 관찰: 자유놀이시간에 보육교직원의 무릎에 앉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주로 또래 아동들의 놀이 활동을 지켜봄. 종종 '선생님, 무서워요'라는 표현을 하였고,
보육교직원 또는 또래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음.
- 가정방문 상담: 가정방문 시, 아동은 본 발달지원상담원에게 인사도 하고
블록놀이를 하면서 '원, 투, 쓰리' 숫자를 세며 놀이 활동을 진행함.
관찰 초반에는 본 발달지원상담원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 졌으나, 주의를
지속하기 어려워 놀이가 진행되지 못함.

선별검사 결과

1) K-CDI(아동발달검사)

- 자조행동, 대근육, 소근육, 언어이해, 글자, 숫자 등 전체 발달요인의 발달수준은 정상범위에 있으며, 사회성 및 표현언어 요인은 정상범위 이하의 지연(또는 경계선)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K-TABS(한국판 영유아 거칠 및 비전행 행동 척도)

- 전체점수 31점으로 고립행동, 과민감성, 과활동성, 저반응성, 조절행동 모두 비전형 수준으로 확인됨.

3) K-CBCL(한국판유아행동평가척도)

- 문제행동 총점 T점수=77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 T점수=77, 외현화척도 T점수=70으로 모두 임상범위로 확인됨. 현재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위축, 수면문제, 공격행동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로 확인되었음.

4) DOST(덴버발달 선별검사)

-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모두 정상 발달로 나타남.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아동은 만 3세 남아로 어린이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 낮잠 시간에 갑자기 큰 소리로 웃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모가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적 지원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을 통해 양육행동을 학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위험요인: 모가 혼자 아동을 양육하며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인 소진의 어려움이 부모양육특성검사(PCT)와 한국판부모양육스트레스검사(K-PSI-4)에서 확인되고 있어 양육에 대해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음.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모: 아동이 불안한 정서를 보이는 상황을 탐색하여 모가 아동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감과 수용의 감정코칭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 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을 위안하고 양육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지함.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해 발달에 적합한 실외놀이를 제안함.
- 부: 아동이 부와 놀이 할 시간을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모/보육교직원: 모와 보육교사는 아동의 반복적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즉시 단호한 제한설정을 보여주고 대안설정을 제시함.
-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 자유놀이를 통한 교수방안을 제시함.

상담결과

- 본 아동의 주 호소문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모와 총 5회의 발달지원상담을 진행하였음.
- 모의 변화: 가정에서 아동과의 상호작용 놀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본 발달지원상담원이 제안한 감정코칭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보임. 그 결과, 아동이 모와의 안정된 상호작용 행동이 증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가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코칭을 통해 모가 아동 발달에 적합한 양육방법에 대해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이를 실천하게 됨.
- 아동의 변화: 어린이집에서는 환경 변화와 낯선 것에 대한 불안 및 긴장 수준이 감소된 모습을 보이며, 기관 적응 및 또래와 어울리고 관심을 가지려는 상호작용 행동이 증가됨. 놀이치료적 개입으로 심리적 안정감의 도움을 받고 있음.

이론 후기



보호자 이론 후기

처음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땐 기대보다는 뭔가 해보자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선생님을 보었을 때 다른 곳에서의 상담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본 듯한 설명과 기본적인 질문이 오고 갈 줄 알았는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 아이에게 필요한 답변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2주 뒤 다시 피드백을 해주셨고 이야기로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어린이집과 가정방문을 통해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모습과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까지 파악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잘한 것은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저의 내면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신청을 통해 글만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다는 것이 더 기억에 남고 제 아이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부족하면 다시 챙겨주셔서 좀 더 아이와 저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망설인다면 저는 한번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5 천천히 가도 돼, 우리 함께니까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문00 (만5세, 남, 어린이집 재원)
사업신청 경 위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관찰해 보았을 때,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것으로 추측됨. 담임교사의 출산휴가로 인해 보육공백이 있는 동안 발달검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부모 동의를 얻어서 신청함.
주 호 소 문 제	언어표현의 어려움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부, 모, 자녀
아동의 발달력	- 건강하게 출산했으며 어릴 적부터 발달은 조금 느렸음. 뒤집기도 느렸고, 걷기도 14개월 정도부터 시작함. 기저귀를 작년 11월(만 4세)에 어린이집교사의 지도로 떼었음. - 겉이 많은 편이며 떼를 쓰거나 보채지 않는 순한 기질의 아동임.
외양 및 행동관찰	- 아동 외양: 키가 크고 마른 편임. - 아동 관찰: - 계속 두리번 쳐다보고 손가락을 계속 움츠리고 피는 행동을 반복함. 활동량은 적절해 보임. 인사를 하니 "안녕하세요."라고 함. - 빨간색 자동차를 계속 소리 내며 움직임. 친구랑 교사의 말소리가 들리면 쳐다봄.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음. 상담사가 빨간 공룡을 꺼내서 빨간색 자동차 옆에 놓아두니 공룡을 짚어서 상담사의 손에 놓음. - 정서공유 및 눈맞춤은 적절하고 나무토막을 상담사와 번갈아 가면서 탐을 쌓는 모방도 이루어짐. 호명 반응에 즉각적인 반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소 느리게 반응함. 발가락을 구부리는 행동이 간헐적으로 보임.

	- 다른 블록놀이를 할 때 자동차 장난감을 잠시 내려놓기는 함. 자동차와 공룡을 함께 노는 중 친구가 공룡을 뺏으려고 하니 그냥 다시 자기 놀이를 함. 친구가 가져가도 달라고 한번 손짓은 하지만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음. - 바깥놀이를 갔을 때 계속해서 도로위에 다니는 자동차에만 관심을 보임.
선별검사 결과	• K-CDI 검사 결과: - 전체 발달이 경계선이하(지연)범위로 나타남. 아동의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 소근육,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자, 숫자, 전체 발달요인이 연령수준에 비해 발달지연이 의심됨.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성, 효율성이 또래 수준보다 낮음. • 강박적인 행동(손가락을 구부리고 피기를 반복)을 간헐적으로 보임. • 현재 연령에 비해 동가연령이 발달영역별로 21개월(글자)에서 39개월(사회성)까지의 차이가 나고 있음. • 부모는 과도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임.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부모의 원활한 소통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모의 태도와 마음가짐 • 위험요인 -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애정은 높으나 요구나 통제의 차원이 낮은 양육태도의 모습을 보여 부모교육이 필요해 보임. - 아동이 가진 기질적 특성과 발달지연 요인인 사회성 결여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 지속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해 보임.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발달수준이 또래에 비해 느린 경향이 있어 아동관찰 및 검사를 통해 발달수준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얻고자 함.
상담성과	• 교사: 현재 아동에게서 발견되는 행동문제를 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행동특성에 적합한 교수지원 방안을 제공함. • 부모: 발달검사를 토대로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또한 부모상담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치료에 필요한 기관정보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함. 부모심리상담을 지원하여 정서적 위안과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도움. 기질에 따른 양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을 통해 아이의 발달과 행동이 조금씩 변화됨.



보호자 이용 수기

우리 아이는 세심하고 예민한 아이라서 또래보다 늦게 가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또한 발달검사는 한 번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달검사가 있는데 신청해 보라고 권해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관찰, 검사,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부족했던 양육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천천히 늦게 가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면 스스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경험과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경계가 많고 조심스럽고 소극적이었던 우리 아이가 적극적으로 호기심 많은 아이로 변화해갔고, 의사소통 또한 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그저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에게 배우고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저 또한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했을 우리 아이에게 왜 빨리 해 주지 못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참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계속되어 많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수기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어발달, 사회성, 그리고 감염에 대한 우려 등등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파급되는 현상들이 기관에서도 많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아이를 대신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학부모의 동의로 시작된 발달 상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고 계시는 발달상담 선생님께서 기관에 와서 아이를 세심하게 상호작용 및 관찰을 해주셨고, 검사를 통한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학부모님과 상담 및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 기관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발달상담원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이의 습관적인 행동 그에 맞는 치료 등을 알게 되어 저희 또한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가제 지표에 보면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부모, 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에 전달할 때는 천 번을 고민하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달상담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확한 평가와 도움을 받게 해준다면 우리 영유아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는 발달상담은 너무 한정적입니다. 예산이 더욱 확충되어 우리 영유아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06

어린이집 활동 시 행동이 느리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아이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신00 (만4세, 남, 어린이집 재원)

사업신청
경 위

-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추적검사 요망(소근육, 자조)이 나옴.
- 현재 유아의 발달상황 체크를 통해 가정 및 어린이집에서 도와줄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자 신청하게 됨.

주 호 소 문 제

- 교사 또는 성인의 지원 없이는 스스로 무엇을 하기 어려워함.
- 바른 자세로 식사가 어려움(편식이 심하여 새로운 음식을 거부함).
- 또래와 함께 놀기보다는 혼자 놀거나 성인과 놀기를 선호함.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 부모, 남동생
- 주 양육자인 모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상호작용을 잘하는 편임.

아동의 발달력

- 출산: 40주 자연분만으로 출생하였음.
- 수면: 신생아기에 4시간 간격으로 잠을 깨다가 10개월부터는 8시간 통잠을 자기 시작함.
- 식습관(수유 및 이유식): 젖병 거부로 인하여 모유 수유를 8개월간 했고, 이유식은 6개월부터 시작하였음.
- 신체 발달: 13개월경부터 혼자 걷기 시작함.
- 알레르기 반응: 원인불명의 전신 피부 알레르기를 경험함(항생제 알러지로 추측). 작년에 눈 부위의 알레르기를 경험함(원인불명).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언어 지연으로 나왔음. 사설 치료기관에서 언어평가를 진행했으며 8개월가량 언어발달 지연으로 나왔음. 만 3세에 백질연화증을 발견함.

외양 및
행동관찰

아동관찰:

-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회피함.
- 옆에서 함께 놀이하던 교사의 말을 듣고 다르게 대답함. 블록놀이를 함께 하던 교사가 "높게 만들고 싶어"라고 말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음. 교사가 유아의 무릎을 손으로 톡톡 치면서 "높게 만들고 싶어"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 "안 돼"라고 대답함.

외양 및 행동관찰	-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자 교사를 바라보며 웃어 보임. - 교사가 “남남”하고 먹는 흉내를 내고 유아에게 음식을 내밀자 “아~ 매워”라고 말함. - 교사의 제안으로 교실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여 놀이에 참여함. 가게놀이를 위해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두 다리로 서서 있지 않고 한쪽 다리로 서기를 하며 계속 움직이기를 함. 두 다리로 서 있기를 할 때도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붙어있지 못하고 발가락이 들어 올려져 있거나 발날로 서 있는 모습을 보임. 잠시 서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바닥에 앉아 있음.
-----------	---

선별검사 결과	K-CDI 발달검사 결과 - 하위척도 [사회성(16.5), 자조행동(2-7), 대근육운동(2-3), 소근육운동(3-7), 표현언어(2-1), 언어이해(2-5), 글자(12), 숫자(3-1)] - 전체 발달척도에서 2년 2개월 지연으로 나타남. Pres 언어검사 결과 - 수용언어 41개월, 표현언어 60개월 수준으로 나타남.
---------	--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이 전혀 없음. - 또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성인(교사)에게만 의사소통을 시도함. - 자발적인 행동이 없으며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임. - 감각 조절에 대한 어려움을 보임. 2) 아동의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 보호 요인: 가족 및 교사의 긍정적인 지지 - 위험 요인: 자조 및 문제 해결력 부족
--------	---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갖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 유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하기 - 유아의 자기 유능감 형성을 돕기
상담성과	보육현장 지원 - 어린이집 현장 관찰을 통해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파악한 후, 담임교사 및 원장님께 아동발달 상황을 안내함. - 어린이집에서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수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함. - 불안지수가 높은 유아의 기질적인 부분을 담임교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이나 유아의 자조행동 지원 방법을 안내함.

부모 지원

- 부모상담을 통해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점검함.
- 유아의 기질적인 부분과 발달상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유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
- 양육상담을 통해 유아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함.

이름 쓰기



어린이집 이름 쓰기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에 앞서 부모님들께 어찌 내용을 전달할까 고민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인데 혹여나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섰던 것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안내해드렸을 때, 우리 아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원에서의 부모상담은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하여 안내하다 보니 부모님들은 무한 기대를 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보육교직원들은 부모에게 학기 초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래 발달을 견주어 이야기할 때 돌아올 부모의 반응이 고심되어 직접적인 상담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은 치료자도 진단을 내릴 수도 없는 입장에서 아이의 발달에 대해 치료나 센터 지원을 권한다고 한들 “때가 되면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 더 이상의 권유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통해 발달지원상담원분이 아이의 하루 일과를 밀접하게 관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관찰해온 아이의 모습과 다를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나름 교사도 원장인 저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해왔지만, 저희도 미처 관찰하지 못한 아동의 손끝 민감함이나 일어서서 활동할 때 발끝을 미세하게 드는 부분, 양발을 벌리고 균형감 있게 딛고 오래 서 있지 못하는 등을 발달지원상담원분께서 발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소극적이고 느린 기질의 친구라 보아왔던 부분을 과한 민감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로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원 생활할 때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셔서 원아를 이해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까 봐 갈등하며 흘려보낸 시간이 아쉬울 만큼 조금 더 일찍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받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개별화를 계획하여 안내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보육현장에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부모 양육방법도 달라지고 부모의 양육 민감성도 많이 부족해져 감을 느낍니다. 이에 발달지원이나 경계성 영유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발달지원상담원분이 직접 각 원마다 찾아가 일상생활을 밀도있게 관찰을 해주시고 교사, 원장, 부모 모두에게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피드백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7

언어 지연 및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송OO (만 3세, 남, 어린이집 재원)

사업신청
경 위

- 표현언어 지연 및 과한 침 흘리기 등 유아에게 보이는 발달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및 상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고자 신청함.

주 호 소 문 제

- 언어발달 지연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
- 평소 침을 지나치게 많이 흘려 발달상의 문제는 없는지 걱정됨.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아버님, 어머니, 13살 형과 9살 형, 의뢰 아동

아동의 발달력

| 생육사 |

- 태아기부터 출생까지 어려움이 없었음.
- 매우 순하여 부모의 특별한 훈육 없이 만 3세까지 성장하였음.
- 만 3세 이후 옹고 그른 행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이 시작되면서 울거나 떼쓰기 등의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양육환경 |

- 맞벌이가정으로 어머니는 낮에, 아버님은 밤에 일을 함.
- 부모님 두 분 다 ○○이의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음.
- 그러나 어린이집 상담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본 사업에 참여함.
- 부모님보다는 첫째 형이 ○○이에게 반응적이고, 상호작용을 잘해 주고 있는 상황임.

| 어린이집 정보 |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 0~2세 반까지 운영. ○○이는 만 0세에 해당 어린이집에 입소하였고, 현재 만 3세이나 만 2세 반에 재원 중임. 그 이유는 해당 어린이집은 만 3세 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올해 12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 이사를

가기 전까지 만 3세가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새롭게 적응을 해나가는 것보다 이미 적응 중인 해당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동의 안정감 있는 생활을 위해 더 도움이 된다는 부모님의 판단에 따라 만 2세반에 재원하게 되었음. ○○이가 재원 중인 만 2세 반은 2명의 보육교사가 협력하여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고, 해당 반은 ○○이를 포함하여 남아 4명과 여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아동들은 만 2세아동임.

외양 및 행동관찰

1. 놀잇감이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준의 가작화 요소가 반영된 단독놀이를 즐기고, 때때로 다른 아동의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며 병행놀이를 함.
2. 놀이하는 동안 자신이 구성한 놀잇감을 교사 또는 또래에게 보여주며 관심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
3. 가작화 놀이를 하는 동안 혼잣말로 “에”, “다”, “디”, “바티”, “떼떼” 등의 소리를 냄.
4.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쉬”, “줄”, “물” 등의 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5. 자유놀이시간에 착용하고 있던 1회용 마스크가 침에 젖은 것이 외관으로 보였고, 교사의 도움 하에 마스크를 교체함.
6. 다른 아동들에게 양보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거나 기분이 좋아 지나치게 흥분된 상태일 때 다른 아동들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함.
7. 놀이 후 정리시간에 교사가 정리하도록 안내하면 “왜”, “싫어”라고 표현하며 정리를 거부함. 또한 교사가 모임 자리에 모이도록 안내하니 모이기를 거부하고 놀이를 지속하려고 함.
8. 교사가 바깥놀이를 가기 위해 줄을 서도록 안내하니, 먼저 뛰어나감.
9. 교사가 훈육을 시도하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교사를 손으로 할퀴거나 발로 차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

선별검사 결과

K-CDI 아동발달 검사

- 52개월 남아의 전체 발달이 31개월로 지연범위로 나타남.
 - 자조행동과 대근육 발달을 제외한 모든 발달(사회성, 소근육,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자, 숫자)이 지연범위에 속함.
 - 사회성이 지연범위이고 대근육이 정상범위이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조절이 어렵고, 충분히 생각하고 의도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래와 함께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상호작용, 언어표현, 감정조절, 놀이, 활동의 수행 등)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JTC 아동기질 및 성격검사

- 자극추구는 높은 편으로 외부자극에 대한 호기심이 적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충동적임.

선별검사 결과

- 위험회피는 평균 수준으로 낙천적인 편이나, 불확실한 상황이나 처음 보는 상황에서는 위축되고 불안을 느낄수 있겠음.
- 사람에 대한 낮가림은 낮은 수준, 에너지 수준도 적절한 편임.
- 사회적 민감성은 평균 수준으로 정서적 감수성과 의존성은 평균 수준인데, 거리두기가 유의미하게 높음. 인내력은 낮은 편임.
- 성취에 대한 욕구가 낮고, 잘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음.

PAT 부모양육태도검사

- 부모는 지지표현 부족함. 언어적 설명과 성취압력 역시 낮은 편으로, 전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지지체계가 빈약함. 간섭과 감독은 매우 낮고, 처벌은 매우 높은 편임. 잘잘못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벌이 가해지고, 아동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거나 경험으로 배우는 학습의 기회가 부족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옳고 그름의 기준선이 설정되지 않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과 기준을 발달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되며, 과잉기대, 비밀관성 역시 높은 편임.

종합

- 아동은 인지발달(사회성, 언어발달)과 소근육 발달이 지연범위로 또래와 함께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양육환경에서는 온정적이고 따뜻한 사랑과 지지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에 대한 지지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임.
- 기질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기질 역시 환경과 상호작용하므로, 가정과 어린이집의 환경과 분위기가 다름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행동과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겠음.
- 전체 발달이 지연범위인 부분이 현재 아동의 적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음.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연상당원이본 아동의 문제

가) 언어발달:

- 두 단어 이상으로 문장을 구성하지 못해 자신의 생각 및 감정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발음이 부정확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움.

나) 정서발달:

- 교사의 훈육 상황에서 눈 마주치기를 피하고, 교사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
-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다른 아동의 몸을 만지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음.

다) 신체발달:

- 마스크가 다 젖을 정도로 침 흘려 조절이 어려운 상태임.

라) 사회성발달 :

- 모임 시간 및 정리 시간, 주의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 참여하기를 어려워함.
- 외부 활동 시 교사의 안내에 따른 참여(줄 이탈, 원하는 곳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보임.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가) 보호요인 :

- 아동은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 부모님 또한 본 센터에서 제시한 솔루션을 수용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나) 위험요인 :

- 아동의 생활연령 학급에 편성되지 못한 것은 아동보다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언어적 자극을 받기에는 다소 어려운 환경으로 보여짐.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1차
상담목표

1. 두 단어로 문장을 구성하여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줌.
2.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꼬집기, 던지기 등)을 감소시킴.

1차
솔루션
및
상담성과

- 언어발달 지연은 기질적인 측면보다 환경적인 자극이 부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언어치료를 통한 빠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에서는 ○○이의 수준에 맞는 그림책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함께 놀이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자극을 제공하도록 교수지원을 함.
- ◆ [상담성과]
- 주말에 언어치료를 다니며 가정과 어린이집이 협력하여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 3단어로 문장을 구성하여 말하기 시작하였고, 적극적으로 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부모님이 맞벌이로 많이 바쁜 상황이라 양육코칭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워 부모상담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정에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심.

2차
상담목표

1.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기분이 좋을 때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행동이 아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함.
3. 모임 시간 및 정리 시간, 주의 집중을 해야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4. 교사 훈육 시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할퀴기, 발차기, 침 뱉기)을 개선함.

미러링(mirroring) 방법 사용

- 유아가 언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다시 말해볼래?”라고 되묻기보다는 “아~ ○○이가 ~했다고?”와 같이 미러링 방법을 사용하기.
-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경우, “와! ○○아~ 한 번에 알아들었어?”와 같이 칭찬을 통해 강화해주기.
- 만약 ○○이의 말이 빠르거나 발음으로 인해 알아듣기 어렵다면 “선생님이 ○○이 말을 다 알아듣고 싶은데 ~라고 말한 게 맞니?”라고 말해주기.

◆ [상담성과]

- 어휘력이 많이 풍부해졌고, 솔루션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언어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긴 문장을 말로 표현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좋은 터치와 좋지 않은 터치에 대해 적절히 안내해 주기
 -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면 안 되는 이유 및 대안을 제시해 주고, 기분이 좋을 때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예: 선생님과 손잡기, 양손을 잡고 점프하기 등)하기

◆ [상담성과]

- 동생들의 몸을 만지는 행동이 많이 줄어듦.
- 유아의 공격적 행동 시, 충분한 설명 및 기다리기
 - 공격적인 행동은 언어지연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와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현재 교사가 적용하는 것과 같이 충분한 설명과 기다려주는 방법 등을 유지하도록 교수지원함.

◆ [상담성과]

- 충분한 설명과 기다리는 방법을 지속하니 이전보다 공격적인 행동이 개선됨.





어린이집 이름 쓰기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만 2세반 □□□ 교사입니다.

○○이는 어린이집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단독행동, 훈육과정, 특히 의사소통하는 데 제일 힘들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의 평소 양육태도나 어린이집 행사 참여도를 미루어 짐작하였을 때 협조를 잘 해 주실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 담임교사로서 노출되어야 하는 부분과 사업을 참여해서 ○○이가 크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어머니께서 ○○이에 대한 발달상황을 잘 알고 계셨고, 언어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에 진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의 1차 사례회의를 통해 언어치료 및 생활 속에서 줄 수 있는 언어적 자극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침 흘리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솔루션을 받았고, 이에 부모님은 언어치료를, 어린이집은 다른 교사들에게 솔루션 결과를 공유하여 일대일 언어적 상호작용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솔루션팀과 교사들의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의 마음에 남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기와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훈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가 교사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꼬집어서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셨던 원장님과 이러한 훈육 과정도 선생님이 ○○이에게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거라 말씀해주셨던 센터 솔루션팀의 2차례 더 이어진 사례회의 및 솔루션을 통해 ○○이를 포기하지 않은 결과, 훈육시간이 짧아졌고, 교사가 하는 말을 해하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자신감을 보이고, “거도도(□□□ 선생님)”, “같이 놀아요” 등의 말을 적극적으로 할 정도로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이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었고 제 노력을 알아주신 원장님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분들께서 마음 써주시고, 든든히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믿고 따라와 준 ○○이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센터 솔루션팀으로부터 ○○이의 부모님 또한 ○○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드리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실 담임교사의 힘들만 생각하고, 부모님의 고통을 좀 더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업을 통해 시도도 해보기 전에 걱정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달라질 변화들을 더 기대하며 새로운 시도에 겁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사로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교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잘 헤쳐 나가는 교사가 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08 조롱이 혼자 노는 아이(다문화 가정)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A (만3세 8개월, 어린이집재원)
사업신청 경 위	• 유아(A)의 부모는 중국인이거나 모가 10년 전쯤 귀화한 다문화가정임. • 어린이집 부모상담에서 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모는 교사에게 아동이 '언어도 느리지만 자폐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하였고, 어린이집에서도 언어 이외의 또래 아동들과는 다른 발달 모습을 보여 아동의 현 발달상태와 장애위험 요인을 알아보고자 본 서비스에 지원하였음.
주 호 소 문 제	•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사회성' 지연으로 추적검사요망과 [주의] 판정을 받음. - 중국어로도, 한국어로도 또래만큼의 언어표현이 나타나지 않음. - 가르쳐 주는 말을 따라 하거나 질문을 하면 간단한 말을 답할 수 있어도 물어보지 않으면 스스로는 말을 잘 하지 않음. • 어린이집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집 활동 시, 집중을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딴 곳을 봄. - 계속 한국에서 살아야 할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이에게 어떤 것이 좋을지 결정하지 못했음.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 중국인 부와 귀화한 한국인 모 사이의 맞벌이 가정으로 A는 한국에서 출생함. • 모는 귀화한지 10년 가까이 되었으나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들어 한국인을 사적으로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함. 실제, 상담원이 모와 면담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모는 매우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꺼려하였고, 물어보는 질문에만 응답을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근처에 외할머니, 친할머니(모두 중국인)가 사셔서 종종 양육을 도와주고 계심.
아동의 발달력	• 부는 일상에서 거의 중국어를 사용하고 모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함. 모의 한국어 실력은 유능한 편은 아님. 부모 모두 직장생활을 하기에 바빴고 A에게 중국어로도 한국어로도 언어자극을 많이 주지는 않았다고 함.

- 아동이 돌 무렵 중국에서 6개월 가량을 살았고 당시 중국어를 가르쳐 봤지만, 호명에 반응하지 않은 채 멍하게 있었으며, 결국에는 중국어로도 말하지는 못한 채로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함.
- 교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등원한 지는 만 2세부터 2년 가까이 되었고 말과 표현이 거의 없고 조용한 편이라고 함. 등원 한 달 만에 한 첫 마디는 '양말'이었음. 이후로, 때때때때, 아아아아 등의 웅얼이소리를 자주 내며, 지금도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아 항상 물어봐야 하는 상황임. 막상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 매우 참았다는 것처럼 소변량이 많다고 함. 오랫동안 보아온 교사에게도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표현을 잘 안하고 있어 아동의 의사를 모를 때가 많고 호명과 지시에 반응을 하지 않아 집단활동에서 자주 소외되고 있다고 함.

교사와 또래 상호작용 관찰

- 키와 체격은 또래에 비해 큰 편으로, 동그란 얼굴에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
- 자발화는 거의 없고 조용한 움직임을 보임. 간간히 노래와 또래의 울음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 하나 따라 하지는 않음.
- 교사가 호명하고 따라하기를 지시하여도 듣지 못한 듯, 반응을 하지 않았고 손이나 팔을 잡고 활동을 이끌려고 하면 도망치듯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등의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
- A는 교사와 또래와의 일과 활동에 흡수되지 않은 채 혼자만의 활동과 세계에 빠져 있는 듯하였음.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된 행동 양상을 보였음.

모-아동 상호작용 관찰

[모가 한국말이 서툴고 집에서는 주로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와 A가 중국어로 대화를 하도록 안내하고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상호작용내용을 분석하였음]

- A는 모를 따라다니며 교실의 놀이감, 교구를 모에게 보여줌. 모는 아동에게 선생님과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친구들과 노는 것은 좋은지 등을 물어보았고 A는 한국말을 하는 게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음.
- A는 모가 다른 곳으로 갈까 봐 불안한 듯 언제 집에 갈 건지를 수시로 물어보며 놀이감 탐색에 자유롭지 않았음. 관찰 시간이 끝나고 막상 모가 집으로 가야한다고 A에게 안내를 하였을 때, 아동은 이전 모습과는 달리 순순히 모와 헤어지는 모습을 보였음.
- 모와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접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아동은 주도적이며 적극적이었음. 모와 대화하면서 미소를 보이거나 모가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을 때는 슬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음.
- 아동은 교사-또래와 있을 때와 모와 상호작용할 때 매우 상반적인 모습을 보여 대상과 환경에 따라 기능수준이 매우 다르게 보여졌음.

선별검사 결과

모 보고의 K-CDI 결과:

- 자조행동, 대근육, 소근육,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자, 숫자, 전체 발달요인의 발달수준은 [정상] 사회성 요인이 정상범위 이하의 [지연(또는 경계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 보고의 K-CDI 결과:

- 대근육발달은 [정상], 사회성, 자조행동, 소근육,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자, 숫자, 전체 발달 요인은 [지연(또는 경계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A가 영아기에 부모는 주로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였고, 언어를 막 습득할 시기인 돌 무렵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를 하였으며, 보조양육자인 외, 친조모도 중국인이어서 한국어 습득을 위한 일상적인 환경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였음.
- A의 부모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자녀와도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발달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 부모는 한국가정 영유아자녀의 발달과 관련한 양육과 교육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발달을 촉진할 기회가 부족하였을 것으로 예측됨.
- 한국어 발달은 지연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일과는 한국어로 이루어지다보니, 언어적, 문화적 이해 차이로 활동참여가 소극적이게 되면서 소외감과 위축된 정서를 느꼈을 수 있음.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될 시, 모의 귀화상태
 - 자녀의 발달상태에 관심을 가짐
- 위험요인
 - 주 양육자, 보조양육자분들이 주로 중국어를 사용한다는 점
 - 중국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정한 거주 상태
 - 모가 한국인, 한국문화에 다소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보고자(모, 교사)에 따른 발달검사의 유의미한 차이, 상호작용 대상에 따른 행동 양상의 차이를 안내함.
- 양육자에게 거주 상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언어치료를 안내함.

- 양육자에게 A가 어린이집, 하원 후, 또래가 있는 가정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정된 상황에서 또래와 상호작용, 놀이 경험을 늘려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래관계 지원을 안내함.
- 보육교사에게 A의 위축된 정서에 의한 고립행동과 거부행동의 이해를 돕고 세심한 보육의 필요성을 안내함.

상담성과

- A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거주하기를 결정하고 A의 언어치료를 시작하였음.
- 6개월 후, 추수지원 상담결과, A 언어적인 표현이 많이 좋아졌다는 교사의 보고가 있었음. 여전히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은 가지고 있지만, 교사와 농담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이웃 후기



양육자 이웃 후기

안녕하세요, 49개월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기도에 사는 워킹맘입니다.

순한 기질을 타고 난 아이였고 뒤집기, 앞기, 걷기 모두 또래에 비해 약간 늦은 감은 있었지만 마지노선 개월 수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육아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식사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신생아 때부터 입이 짧아 수유, 이유식, 유아식과 같은 식사 관련 부분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영유아 검진을 하면 개월 수가 지날수록 점점 백분위가 내려가면서 아이 몸무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게 시작 하였습니다. 18개월부터 보낸 어린이집에서는 하원 시 항상 물어보는 부분은 항상 식사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식사 외 다른 부분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6개월이 지났고 조금씩 또래들과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관찰하게 되었을 때 유독 저희 아이가 혼자 노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린이집 사진을 유심히 보니 대집단에 켜 있는 모습은 없고 개인 놀이 사진이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검색 중 각 시에 육아종합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담당자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검사를 받게 되었고 엄마로서 느꼈던 문제가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감각통합치료라는 처음 접해 본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자극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언어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 우리 아이의 현 수준을 알 수 있었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가정에서도 열심히 부족한 부분 자극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6개월 뒤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동일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 진행하고 있는 치료가 적절한지 중간 체크를 하면서

치료 방향성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틈만 나면 아이에게 많은 경험과 다양한 자극을 주기 위해 주중, 주말 상관없이 매주 밖으로 돌아다니고 도래 만남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비해 아이의 성장 속도는 한없이 더디게 느껴졌고, 아이의 치료 거부까지 생기면서 부부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아이에게 좋은 치료 피드백은 없었고, 아이는 계속 거부하지만 치료를 중단 할 수 있는 용기가 저희 부부에게는 없었습니다. 힘든 마음을 나눌 곳을 찾다 다시 한번 육아 종합 센터를 찾게 되었고 “양육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 1회 상담사 선생님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이미 아이를 키우고 계신 육아선배 어머님이셨고 저와 같은 상황을 겪어 보신 경험이 있어 말을 귀기울여 들어 주셨고 잘하고 있다고 끈임 없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아이에게 신경을 쓰느라 저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아픈 저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처음 1-2회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렵기도 하였는데 회기가 지날수록 조금 더 편하게 진솔한 대화를 꺼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인지조차 몰라 막막했던 지난날 선생님을 통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만 느껴졌던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이용 후기

작년 2021년, 저는 3년 차에 만 4, 5세 담임교사를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만난 새로 입소한 유아A는 발달이 또래보다 늦다 보니 어울리기 힘들어하였고,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감정조절하는 것 또한 어려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실외놀이를 한다는 기쁜 마음에 유아의 감정이 격해졌고, 놀잇감을 저에게 던지고, 꼬집고, 때리는 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앉아서 유아를 기다렸고, 약 10분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아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지? 선생님이 안아 줄게” 라며 팔 벌리고 앉아 기다리면 안기다가도 다시 위와 같은 상황이 약 40분간 반복되었습니다. 발달지연과 관련된 지식이 없던 저에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아의 행동으로 인해 외적인 상처를 입은 것보다 이 유아 발달에 적합한 대처방안을 모르고 있던 저 자신을 1년간 자책했습니다. 이후 2021년 하반기 교직원 면담을 하며 내년에는 발달 지연과 관련된 교육, 서적을 읽고 싶다는 계획을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22년에도 동일한 학급 담임교사가 되었고, 언어치료를 받고 있으며 감정 및 충동행동 조절하는 유아B를 만났습니다. 유아B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 책상 위에 올라가고, 의자를 던지고, 교사인 저를 목 조르는 등 충동 행동 조절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마다 지식이 부족한 저를 수도 없이 자책해 왔습니다.

원장님께서 저에게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보육교사 사례모임’이라는 지원사업을 권유해주셨습니다. 1년 넘게 자책해 오던 저에게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이 사례모임을 통해 유아A, B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약 8회기 동안 비대면을 통해 사례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사례모임을 하며 발달 지연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고, 사례를 분석해 주시며 여러 원인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발달 관련 검사지를 제공해 주셔서 학급 유아를 대상으로 검사하여 제출하며 객관적인 분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검사를 하며 제가 바라보는 유아의 시선뿐만 아니라 메이트 교사와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항목마다 상의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유아를 위해 가정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부모님께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안내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매번 ‘아이의 발달 수준을 정확히 모르겠어요’라며 질문하셨었고,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신청하셨습니다. 발달지원서비스를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여러 검사도 실시하고, 담임교사 면담과 현장관찰로 유아의 현 발달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발달지원서비스를 받은 후 유아는 충동행동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또래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하반기 학부모 면담을 하며 유아B의 어머님께서 “발달지원서비스 덕분에 아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육아에 관심 없던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되어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와 사례 모임 덕분에 교사로서 전문성이 향상됨을 느꼈고, 사례 모임을 통해 선생님들을 만나며 ‘나만 이런 힘들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껴 많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9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김OO (만2세, 남)
사업신청 경 위	•아동이 모보다는 부를 찾는 경향이 발달에 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함. •아동의 발달상태가 궁금하여 신청함.
주호소 문제	•아이가 모를 따르지 않고 부만 찾는 모습이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음.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음.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이에게 맞는 양육 코칭을 받고 잘 키우고 싶음.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부모, 아동 (부는 직장을 다니고, 모는 집에서 육아와 가사 일을 함) •시댁이 가까이 있어 자주 만남과 시간을 갖고 있음.
아동의 발달력	•아이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두드러진 특이점은 없음.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거나 거친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고 모의 건강 문제로 많이 안아주거나 놀아주는데 제한적인 상황이었음. 부부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많고, 시댁의 지나친 간섭이 모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아동 양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외양 및 행동관찰	•아동 관찰: -가정방문 시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다가 놀이를 하면서 점차 상담원의 손을 잡아 이끌거나 장난감을 권해주는 등 친근함을 표현함. -모에게 안기거나 하기보다는 뒤에 가서 숨는 등의 행동을 보임. -눈 맞춤과 걷기 등도 자유롭고 상담원이 묻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함. 자동차 놀이 등을 좋아함. •모 관찰: -가정방문 시 눈물을 보이는 등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임. -그때 아동은 놀이를 멈추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엄마 근처로 다가가서 안기진 않고 뒤에서 있거나 숨는 모습을 보임.

선별검사 결과

검사결과(K-CDI, K-CBCL, K-TABS, K-PSI):

- 아동발달검사(K-CDI): 전체 발달이 정상으로 나타남. 특히 대근육과 언어이해가 높았으며 사회성이 높게 나옴.
- 모의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우울감이 높았음. 아동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아동의 행동평가척도 선별검사(K-CBCL): 신체 증상 관련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와 아동이 현재 감정이나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신체화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기질검사(K-TABS): 특별히 예민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없었음.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가정방문 시 모는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싶은 것이 많으신 모습이었음. 아동은 발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모와 긍정적 애착 형성이 잘 안된 모습으로, 이에 적절한 양육코칭 및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애착 형성이 필요해 보였음. 모가 양육코칭 상담을 원하셔서, 모 상담을 진행하여 공감과 격려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발달지원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아동의 보호 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부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모의 적극적인 상담 참여, 아이의 발달수준이 정상발달 범주에 속하는 점, 상담을 신청하는 모의 자발성, 모의 솔직함과 진솔함 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함.
- 위험요인: 모의 불안정한 감정과 정서 기록, 모와 아동의 불안정한 유대감, 아동이 신체증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등이 위험요인에 해당함.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1) 모의 감정과 정서 다루기:

- 양육을 인정적으로 하기 위해 정서를 충분히 다루어 주면서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양육 의욕을 높임.
- 양육코칭을 통해 모와 아동과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함.
-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2) 우리 미미 이해하기:

- 자녀의 현재 발달과 정서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유하면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함.
- 자녀의 발달에 적절한 놀이방법이나 놀이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들을 습득함.

상담성과

- 모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을 많이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게 됨. 이에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이사랑놀이터 등)을 소개함. 함께 참여하면서 애착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되었고 현재는 아동이 모를 매우 잘 따르고 안기면서 지내고 있음.
- 모가 상담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격증 취득 도전과 양육에도 능동적인 관심을 보이며 생활의 변화를 가져옴.
-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각자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과 양육관 등을 공유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름 쓰기



보호자 이름 쓰기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며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5년의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커리어가 단절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진 제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던 때에, 소중한 제 아이를 얻었습니다.

살신이 약해져서 육아에 자신이 없었지만 온 힘을 다해 열과 성을 다했으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육아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18개월에 되던 때에, 허리 디스크를 얻어 신체와 정신이 무너지고 있었고, 우연한 기회로 육아종합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외욕이 사라지고 심신이 벅장 끝에 있다고 느낄 때 즈음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상담이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가정방문과 현황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와 아이의 상태를 봐주시는 선생님께서는 선별검사를 통해 제 아이가 발달상 정상적이나 심리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으며, 저는 우울감을 갖고 있다는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저보다는 아빠를 더 따르고, 제 스스로가 자신감이 떨어져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제 심리적 상태가 아이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해결 방도가 대무르지 않았으나, 선생님과 일주일에 1번 꾸준한 화상 통화와 발달검사 등을 진행하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저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적으로 변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가족 간의 마찰이 줄고 아이와의 애착이 차츰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상담사 이상의 존재였으며, 제가 눈물을 흘릴 때는 엄마처럼, 때로는 다정한 친구처럼, 기대고 실을 때는 의지할 수 있는 언니였습니다. 상담 종료를 해야 했을 때는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를 위해 선생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삶을 헤쳐나갈 상담과 도서 추천을 해주시며 마지막까지 저라는 퍼즐을 맞춰주셨고, 완성될 것 같은 제 퍼즐이 현재는 비어진 것 처럼 보이지만 상담을 통해 마련한 큰 틀 안에서 지금 저는 스스로의 조각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원인과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저와 같은 다른 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으로 삶을 헤쳐나갈 소중한 나침반을 하나씩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윤00 (만3세, 남)

사업신청
경 위

- 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아동을 살펴보고 발달에 걱정이 되어 부모님께 동의를 구하여 발달검사를 의뢰함.

주요소 문제

-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친구들과 놀이를 하지 않음.
- 아이의 현재 발달상태를 알고 싶음.
-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해서 친구들과의 사이가 안 좋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걱정이 됨.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 부모, 아동 (부-직장을 다니며 바쁘게 지내심)
- 모-다문화로 한국어 대화가 어려워 담임교사와는 문자로 소통하는 중임.

아동의 발달력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에서 언어 및 청각이 '주의 요망'으로 나타남.
- 친구들과의 관계, 자신에 대한 표현을 언어로 말하는 일이 거의 없음.
- 어린이집에서 감정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행동을 거칠게 하거나 과격하게 표현하기도 함.

외양 및
행동관찰

- 아동 관찰:
 - 놀이 시 장난감끼리 부딪히거나 밀치는 놀이를 함.
 - 자석을 원리로 한 기차놀이를 하는데 줄 세우기, 다리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집중해서 진행함.
 - 이름이나 나이, 친구 이름을 물어보는데 거의 대답을 하지 않음.
 - 웅얼이를 하거나 자신만이 아는 소리로 표현하기도 함.
 - 눈맞춤이 가능하고 주변의 상황을 보고 관심을 가지는 등의 주의 공유 및 정서 공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선생님의 권유로 인사를 시키자 잘 함.

선별검사 결과

K-CDI 검사 결과:

[발달검사 당시 주 양육자인 모의 국어언어로 검사가 진행되어서 검사지를 다문화용으로 진행하였음.]

- 발달검사에서 전체 발달이 느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사회성과 언어표현과 언어이해가 있음. 먼저 아이가 성장하는데 언어표현의 중심이 되는 모국어를 부모가 상의하여 설정, 그를 바탕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언어를 정하여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현재 아이가 웅얼이나 말을 하려는 주제나 상황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여 아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말을 하지 않으며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방법을 어려워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면 폭력적, 행동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부모의 지지적인 격려와 애정 어린 양육태도를 일관성있게 아동에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모가 다문화로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 간 정서적인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부모가 자녀의 발달지원 진행에 있어 경제적, 상황적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연계 기관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가정과의 연계, 상담 및 검사에 긍정적으로 참여한 부모, 아동의 적절한 신체 건강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함.
- 위험요인: 모와 아동 간 소통의 부족, 가족 간 의사소통, 모의 스트레스, 아동의 발달지연 등의 위험요인이 발견됨.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1) 선별검사를 통해 심층검사 진행: 아동의 선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검사를 진행하여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함.
- 2)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 다문화가족센터에 모의 한국어를 비롯한 모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연계함.
- 3) 부모님과의 서면 및 전화상담: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아버님과는 전화로, 어머님께는 번역 한글을 작성하여 결과 내용을 안내해 드림.
- 4) 어린이집 담임교사와의 상담: 아이의 발달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보육기관에서의 발달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진행함.

상담성과

- 1) 아버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검사결과를 공유하고 각종 검사 및 양육지원 정보를 공유한 결과, 병원을 예약하시고 심층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심.
- 2) 모에게 다문화 언어로 번역한 검사결과 및 안내문을 편지로 제공하여 서면으로 안내하였음.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을 취해 사례를 공유하고 가능한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제공 받아 전달드릴.
- 3) 어린이집의 교사 및 원장님과의 상담을 통해 보육 정보 및 발달지원 결과를 안내하였고 이후 아동이 약간씩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심.

이름 쓰기

어린이집 이름 쓰기

또래 친구들보다 언어, 사회성에 있어 다소 느린 발달을 보이는 아이라 가정과 자주 상담을 진행하곤 했었어요. 가정에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지만 바쁜 상황과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발달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담당교사와 부모님의 발달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상담원 선생님께서 직접 기관으로 찾아와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시는 모습을 보며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또한 결과에 대해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며 진심 어린 말들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상호작용 방법 및 보육 관련 자료까지 전달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는 다문화가정인데 평소에 양육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웠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머님께 번역기를 사용하며 편지를 적어 보내주시는 등의 도움을 주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불어 가정에도 별도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따로 안내해주셔서 부모님께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상담 이후 또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나 변화는 없는 것 같았는데 친구와 어울리려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고민이 되었던 공격적인 모습이 줄어드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저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게 된 것 같아 그 역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1 다문화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가00 (만4세, 여, 어린이집 재원)
사업신청 경 위	다문화가정 아동인 00은 발달수준이 또래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고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및 활동이 되지 않으며 기본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신청함.
주 호 소 문 제	- 또래와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 놀이 시, 교사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언어표현 및 상호작용이 전혀 되지 않음.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 모(동남아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 한국생활 10년차) 9세의 친오빠(초등학교 특수반)
아동의 발달력	- 어릴 때부터 모든 발달에 있어서 늦은 모습을 보였다고 함. - 오빠도 발달지연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특수반 학급에 다니고 있다고 함. - 부가 생계로 인해 양육에 참여하지 못했고 모 혼자 대부분의 양육을 하게 됨.
외양 및 행동관찰	- 어린이집 방문 관찰: 발달지원상담원이 방문했을 시, 가정보육을 며칠 지낸 후여서인지 모와 분리가 되지 않고 분리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는 모습을 보임. 부담임 교사가 개별적으로 진정시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음. - 놀이 시, 고개를 대부분 숙인 채 일관되게 무표정으로 지내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없으며 교사의 호명에도 잘 반응하지 않음.
선별검사 결과	- 모가 보고한 K-CDI 검사결과: - 부모보고 프로파일은 대근육발달을 제외한 모든 발달범위가 지연범위에 속함. - 사회성 및 표현언어 부분에서 아주 낮은 발달수준을 보임. - 검사 당시 생활연령은 만 3세 10개월이지만 전체 발달은 23개월로써 1세 11개월의 지연으로 나타남.

	• 교사가 보고한 K-CDI 검사결과: - 전반적인 모든 발달범위가 지연범위로 나타남. - 전체 발달 수준은 14개월로써 2세 8개월의 발달지연을 보임. - 보호자의 프로파일 보다 발달지연의 폭이 더욱 심각한 수준임.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배변훈련이 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음. •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고 정서문제보다 인지적 문제가 더 문제로 보임.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 모가 적극적으로 아동과의 상호작용방법 및 놀이방법을 이행하려고하는 적극성을 보임. - 어린이집 원장님과 담임교사의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위험요인 - 부는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며, 자녀들의 발달지연을 전적으로 모에게 전가함. - 다문화가정의 특성으로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을 모가 가지고 있으며 정보제공이 많이 부족함.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및 상호작용을 촉진함. - 센터에서 총 7회기의 놀이치료 및 부모상담 진행함. • 모래놀이를 통해 놀이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마트놀이와 주방놀이, 블록놀이 등을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진행함. • 모에게 아동과 놀이방법을 코칭하여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미디어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함.
상담성과	• 아동의 변화: - 처음에는 낯선 장소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으나 점차 낯선 장소에서 모와 분리되는 연습을 하게 됨. - 표정의 변화가 생기고 어린이집에서도 조금씩 상호작용이 가능함. - 놀이모방 및 상호작용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약간의 주고받는 모방이 가능함. • 부모의 변화: - 치료 종료 후 다문화센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드리자 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어린이집 이용 수기

다문화가정 아동이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아동에 대한 발달 상황을 상담드려도 부모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부모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아동은 발달에 많은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치료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 다문화가정의 폐쇄성으로 너무 미비한 상태라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바우처와 전문치료까지 연계해서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호자 이용 수기

처음에 사업을 접하게 된 것은 어린이집원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해 안내해주셨고 아이가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어 어떤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센터에서 놀이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본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놀이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놀이치료를 통해 아이 성격이 밝아지고 표현(표정)이 없었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놀이 할 때 이전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받아 들어주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놀이를 할 때 아이에게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아이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일매일 놀이 방법에 대해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12 언어표현이 어려운 아이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만2세, 여, 어린이집 재원

사접신청
경 위

• 모가 아이의 언어발달 지연에 대해 걱정하시며 아동의 발달검사를 요청함.

주호소 문제

• 아동이 언어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수용언어는 가능하지만 표현언어에는 어려움이 있음.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조모, 부모, 언니 2명

아동의 발달력

• 특이사항 : 주 양육자(조모), 표현언어 1~2단어 정도 가능함.
• 밥을 거부함. 최근까지 젖병에 분유를 먹음. 틱 행동을 보이는 형제가 있음.

외양 및
행동관찰

아동 관찰:

- 혼자서 책을 넘기며 책을 읽을 수 있음. 관찰자가 책에 있는 무당벌레를 보며 “무당벌레 어디 있지?”라고 이야기 하자 손으로 무당벌레를 가리킴.
- 체육선생님이 체조를 제시하자 가만히 서 있거나 다른 곳을 멍하니 응시하는 모습을 보임.
- 체육활동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공을 팔에 끼워서 위아래로 흔드는 활동에 대해 아동도 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하자 공을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관찰됨.
- 두 발 모아 뛰기를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까치발을 들고 땅에 발을 딛고 뛰려는 모습이 관찰됨.
- 숟가락을 손에 쥐고 밥을 먹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밥을 먹을 때만 눈을 꼭 감고 먹는 모습이 관찰됨.
- 관찰 내내 얼굴은 무표정하였으며, 다양한 표정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선별검사
결과

DEP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 결과

- 백분위 점수는 대근육 운동기술 10.2, 소근육 운동기술 4.8점, 의사소통 2.3점, 사회정서 0.1점, 인지 4.8점, 기본생활 4.8점, 총점 0.8점으로 매우느림(2차 전문가 평가 필요)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밥을 거부하는 이유를 확인한 후, 식습관 개선을 도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표현언어의 부족으로 언어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 어린이집 식사 시간에 반찬 외에 밥 먹기가 가능함.
- 어린이집 내에서 건강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돼 있음.
- 선생님과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돼 있음.

• 위험요인

- 조부모님의 양육으로 잦은 시간 미디어매체에 노출되어 있음.
- 조부모님과 어머니의 갈등으로 인해 일관된 양육의 어려움.
-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로 인한 안정적인 애착형성의 어려움.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1) 선별검사 결과안내를 통해 모가 현재 아동의 발달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움.
- 2)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 및 올바른 지도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움.
- 3) 소근육 향상에 대한 방법을 안내함.
- 4) 안정애착을 통해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
- 5) 언어치료의 필요성 및 관련 정보를 안내함.

상담성과

-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관찰 내용 및 선별검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함.
- 교사의 변화: 아동이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 아동이 좋아하는 활동도 많이 계획해서 제공해 줄 예정이고, 발달이 부족한 영역에서도 발달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써서 돕겠다고 함.
- 부모의 변화: 언어발달의 지연에 대해서는 상담원에게 언어치료 정보를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정보 제공을 통해 언어치료를 진행하기로 함. 그러나 애착의 중요성 및 가정 내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대해 제시하였을 때 가정 내 양육방법 개선에서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 만족도 조사결과 보육교사 및 이용 부모 모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작성함.



어린이집 이용 수기

또래 영아들보다 언어 발달이 조금 지연되어 보이기는 했지만 워낙에 영아라 부모님께 전달 드리기 모호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육아 종합지원 센터에 발달지원서비스사업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 연락을 드리게 된 터라 해야 할 서류가 많아 다소 어렵기도 했고 가정으로 서류를 보냈다 다시 받아야 함에 번거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지원센터 측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무난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관찰을 나오신다고 했을 때도 다소 긴장했었는데 질문사항에 친절히 답변해 주시고 급식시간에 아이의 저작 활동에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직접 연락을 주시고 상세히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원에서의 지원계획이나 가정과의 연락이 수월했습니다.

가정과 연락을 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야기 해주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감한 부분인 만큼 조심스러우셨을 텐데 전문가의 소견으로 친절하고 상세히 관찰,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원에서 관찰이나 상담이 필요한 원아가 발생할 경우 편안하게 연락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13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노O (만3세1개월, 남, 어린이집 퇴소, 시간제 보육실)
사업신청 경 위	아동의 어머니
주호소 문제	•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고 돌아다님. • 때를 쓸 때 뒤로 나자빠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임. •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 하지 않음. (예-컵을 드는 방법을 아직 모름)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 부모는 이혼 소송 중으로 별거중이며 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 • 외조모부의 도움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음.
아동의 발달력	• 부부 갈등이 심하며 아동은 부부싸움에 늘 노출되어 있었음. • 모는 우울하고 무기력함.
외양 및 행동관찰	•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다님. • 주변을 둘러보지 않아 다른 친구들을 밀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수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면 짜증을 내면서 누워버림.
선별검사 결과	K-CDI결과: • 아동은 전체 발달이 경계선 이하 범위로 나타남. • 사회성, 자조행동, 소근육, 표현언어, 언어이해 등 전체 발달 요인이 연령수준에 비해 발달지연으로 의심됨.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현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임. 물을 마시거나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는 등 자조행동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고 말을 할 수 없음. 집중력이 매우 짧고 성격이 급하며

타인에게 대한 의존도가 높음. 갑자기 머리를 박거나 때리는 자학적인 행동이 많고 의자에 앉는 것을 거부함.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아동은 외조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양육되어지고 있음.
- 위험요인: 모의 우울과 무기력감으로 일관성 없는 불안한 양육을 하고 있음.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아동이 의자에 앉아서 간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기다리는 연습을 하도록 함.
- 떼를 쓰거나 욕구표현 시, 뒤로 넘어가고 자학적인 행동을 줄일수 있도록 함.
-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수행할 수 있게 함.
- 시간제 보육실에 매일 등원시켜 생활수칙과 자조행동을 익힐 수 있도록 함.

상담성과

- 아동의 변화:
 - 떼를 쓰거나 욕구를 표현할 때 뒤로 넘어가고 자학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의자에 앉아서 간식을 먹을 수 있음.
 - 스스로 컵을 들고 물을 마시며, 간식 먹기 및 신발 벗고 신기를 할 수 있음.
 -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고 기다릴 수 있음.
- 기타 상담성과:
 - 어린이집을 퇴소한 상황이라 시간이 자유로운 장점을 이용하여 센터 내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하도록 함.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하는 동안 매일 아동을 관찰하고 교육하며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음.
 - 이에 아동치료와 교육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었음. 아동발달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음. 센터 내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의 역할을 다각도로 수행할 수 있었음.



어린이집 이용 수기

올해 7월.. 시간제 보육실에 30개월이 넘는 아들이 예약을 하였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반아동인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시간제보육실을 찾은 아들의 첫인상은 복도 바닥에 누워 발을 위아래로 튕기며 떼쓰며 큰소리로 울고 있었다. 엄마가 겨우 달래 보육실로 들어왔고 아들은 놀잇감을 쏟고, 던지며 자신의 방식대로 놀잇감을 탐색하였다. 엄마와 함께 매일 1시간씩 보육실에서 일주일의 적응시간을 보내며 아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아이의 문제행동이나 습관 등으로 다니던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및 케어가 어려워 퇴소를 권고 받았고, 그렇게 아들은 어린이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린이집 퇴소를 권고 받고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상담 진행 후 시간제 보육실을 소개받고 내원하였다. 30개월의 아동을 집에서만 데리고 있기 힘든 상황이고 엄마는 시간제 보육실에 잠깐이라도 아이를 맡기고 양육방법을 배우고 교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오겠다고 하였다.

아들은 표현언어가 거의 되지 않았고, 침을 많이 흘리며, 기본생활습관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닥에 누워 큰소리로 울며 떼를 썼다. 일반 보육교사인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센터 내 영유아 발달담당선생님과 아동을 위해 노력해보기로 했다.

엄마와의 꾸준한 상담 및 정보교환, 아동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가정과 연계하여 일관성있게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조금씩 익혀나갔다. 간식시간에는 제자리에 앉아있기, 컵으로 스스로 물마시기, 신발 벗고 신기 등을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교육하였더니 아동의 자조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아이는 스스로 물컵을 들고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간식을 먹으며, 스스로 신발을 신는 등 혼자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늘어가며 교사도 부모도 보람을 느끼며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울지 않고 요청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격려, 기다려주며 스스로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음을 교사인 나 또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아들은 두 달 후 관내 일반 어린이집으로 입소하게 되었다.



14 물면서 등원하고 올다가 하원하는 아이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권00 (만2세4개월, 여, 어린이집 재원)
사립신청 경위	어린이집에서 의뢰
주요소 문제	• 모와의 분리불안으로 모와 분리된 시간 내내 우는 행동을 보임. • 아동이 등원 때부터 하원 시까지 울어서 아이에 대한 보육이 어려움, • 언어발달 및 사회성발달 지연으로 인해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가 어려움.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부모, 아동(권00)
아동의 발달력	• 아동은 조기 출산으로 발달이 느린 편이었음. • 어려서 시력에 문제가 있어 현재 병원에 다니면서 시력교정치료를 받고 있음. • 신체활동이 또래보다 지연된 모습을 보이며, 언어발달 및 사회성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보임.
외양 및 행동관찰	• 아동은 시력교정용으로 두꺼운 안경을 끼고, 까치발을 하고 걸어 다니고 있어 누가 봐도 신체발달의 지연을 감지할 수 있음.
선별검사 결과	K-CDI결과: • 사회성지연, 대근육 발달 경계, 표현언어 지연소견이 있음.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아동은 표현언어가 전혀 되지 않고 사회성 발달이 지연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조기발달 지연과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대근육 발달이 지연되어 대부분의 활동을 부모가 대신해주고 있었음. • 아동의 신체발달 지연으로 부모는 아이에게 무조건적 허용과 불편함이 없도록 대하고 있음. 아동은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참지 못함. 모와 분리가 어려움.

사례
개념화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모가 자신의 양육방식으로 아동의 불편함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대기 하고 있음.
모의 양육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 부가 양육에 참여하여 아동의 자조기술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함.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사회성발달 및 언어발달 촉진을 통해 어린이집 적응을 도움.
-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개선함.
- 분리불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

상담성과

- 아동은 어린이집에 울지 않고 등원하고 있고, 또래 아동이 프로그램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음.
- 주 양육자인 모의 양육태도를 개선하고 부가 함께 양육하면서 아동의 자조기술을 발달시킴. 모는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하고 아동이 스스로 발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음.
- 모와 분리돼 부와 함께 밥을 먹거나 외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였으나 부와 외출하고 2박3일을 친가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모와 분리가 이루어짐.

이혼 후기



보호자 이혼 후기

결혼을 일찍 해서 주위에서 재가 첫 아이이고 육아에 관련해서 어디다가 물어볼 곳도 없고 혼자 인터넷을 찾아보며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는 중에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나서 도움 받을 수 있었고, 그때에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참 든든하고 다행이었다였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집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아이는 세시간 정도를 내내 울다 심하면 울다가 토하고 오는 날도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울다가 오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직 말을 트인 아이가 아니라 그 이유를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등원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울어서 정말 똥소해야 하나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의 기분을 맞추고 어린이집 생활을 잘 하고 하원을 하고 아이와 무엇을 하면 놀아야 할지 이야기를 하면 아이를 등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등원부터 어린이집 생활을 관찰을 하고 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이에게 어린이집은 친구들과 즐거운 활동을 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힘들게 버티고 돌아오는 기관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 과정으로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즐거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관임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등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울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아이들 등원이 끝난 10시에

등원을 해왔으나 다른 친구들이 즐겁게 등원하는 모습도 보고 등원후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등원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엄마의 마음 상태를 바꾸고 등원시간을 바꿔 등원하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엄마인 저도 답을 몰라 답답하고 속상만 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아이가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정말 상담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담까지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애가 타고 답답한데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많아서 상담사 선생님과 상담하기 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동을 양육하며 육아에 대한 고민이 있는 엄마라면 그 누구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중에 아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 엄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을 함께 생각해 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육아하는 엄마에게는 더욱 더 추천합니다. 이 사업이 더욱더 커져서 더 많은 엄마들이 걱정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후기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아는 1학기 내내 큰소리로 울고 토를 하면서 교사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교사가 영아와 눈을 맞추고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며 앉아있을 때에만 울음을 그칠 뿐, 교사가 다른 영아와 이야기를 하거나 도와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다시 울면서 토를 했습니다. 당연히 반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교사의 관심에서 멀어진 영아들이 다툼을 하거나 해당 영아의 행동을 모방하여 따라 울면서 교사의 관심을 요구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교사 역시 좌절감과 무력감 속에서 지쳐갔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학부모님, 교사, 원장님 모두 다른 방법을 찾아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선 영아의 분리불안을 줄이고 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님이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직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원장님, 교사의 상담만으로는 학부모님의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 영유아발달 서비스의 부모양육태도 상담을 통해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했습니다.

부모양육태도 상담을 계기로 학부모님에게 변화가 생기면서 영아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아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교사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 또래 영아들 역시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교사의 관심을 골고루 나누어 받으며 교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 역시 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루 일과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반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동의 울고 등원 거부하는 행동이 주기적으로 다시 나타날 때 마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상담을 재차 요청하여 상담과 양육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몇 번의 양육상담을 통해 부모도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하여 아이의 우는 행동은 줄어들고 언어표현도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센터의 상담선생님께서 영아에게 다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비정기적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신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아는 상담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유아발달서비스를 이용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영유아 발달서비스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어 고통 받는 많은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5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요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박00 (만2세 (31개월), 남, 어린이집 재원) 다문화가정(마동 모-베트남)
사립신청 경 위	• 아동의 언어발달 및 사회성발달 지연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이 의뢰함. •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아동 부의 동의를 받아 신청함.
주 호 소 문 제	• 아동의 언어지연 문제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어려움. • 아동의 식습관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 31개월 남아임. • 47세 한국인 부, 베트남국적의 25세 모, 출생 100일된 남동생이 있음.
아동의 발달력	• 태어날 때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함. 출생 후 아동의 양육은 주로 모가 담당했고, 부는 직장일로 인해 대부분 자는 모습만 보는 정도였다고 함. • 아동의 부모는 아동이 시간이 지나면 발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자극을 주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함. • 모는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과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잘 갔다왔어?”, “괜찮아?”, “밥먹어?” 등 매우 한정적인 대화만 할 수 있다고 함.
외양 및 행동관찰	• 아동은 호명반응이 매우 미흡했으며, 포인팅이 가능하지 않음. 관찰시간 동안 의미있는 언어사용이 관찰되지 않음.(또래 및 교사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음) • 아동은 혼자 놀이하고, 지시에 따르거나 요구하기가 가능하지 않았음. • 아동은 소방차를 보며 ‘애앵’이라고 혼자 말하고 비행기를 보며 ‘비해’라고 혼잣말처럼 말 할 수 있음. • 시, 청각적인 자극에 빠른 반응을 보임(싸운드 북을 누르며 놀이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음). • 놀이 중 아동은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선별검사 결과	K-CDI결과: • 사회성(17), 자조행동(19.5), 대근육(20), 소근육(14), 표현언어(16), 언어이해(15)로 전체발달(16.5)이 경계선이하 지연범위로 나타남.
사례 개념화	1) 발달지연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아동의 발어량이나 발어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언어표현이 없었음. • 교사 및 또래와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전혀 없음. • 아동은 감각적으로 예민함. • 주변에 관심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옆에 없는 것처럼 혼자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자 함 (소리 나는 음률에 반응함)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부모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함. • 위험요인: 아동의 심각한 미디어시청, 아동부의 양육에 대한 무관심.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 아동의 언어발달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아동 모의 한국생활을 위한 지원방법을 안내함. • 아동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함. • 아동의 발달지원을 위해 치료기관을 연계함. •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환경을 개선함. •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방법을 안내함.
상담성과	• 부모의 변화 - 현재 아동이 보이고 있는 발달단계에 대해 이해를 돕고, 다양한 자극을 통해 전체적 아동발달을 위해 도와야 할 것을 안내함. - 한국어 활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모와의 상담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통역사를 지원받아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방법 및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함. 또한 가족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해 아동모의 한국어 공부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함. - 부모의 일관된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아동부의 양육참여가 중요함을 안내함. - 예방적 차원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함을 안내함. (현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놀이치료 및 감각통합치료를 받고 있음) - 아동의 미디어 시청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안내하고, 미디어 시청의 관리가 필요함을 안내함. • 아동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방법 안내함.

16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달팽이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고00 (만3세 8개월 남아)
사업신청 경 위	• [부모] 또래 아동에 비해 단체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여 교사와의 상담 후 모가 개별 심층평가 프로그램에 동의해 신청하게 됨. • [어린이집 교사] 학급을 운영하면서 발달상 어려움을 보여 발달 지원을 받고자 신청함.
주 호 소 문 제	• [부모] 모는 아동이 주변에서 별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으며, 기관에서 돌발행동이 나타나 아이의 정확한 발달 수준을 알고 싶고 부모의 올바른 양육방법과 방향성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함. • [어린이집 교사] 배변훈련 및 식사 등 자조행동에 대한 어려움을 보임.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눈맞춤이 어려우며 의사표현 및 언어이해를 어려워하여 사회성과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보임. 이동 시 줄 이탈 및 기다리기 등을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임.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부모, 동생
아동의 발달력	• 임신 중 전치태반 때문에 출혈에 대한 걱정이 있었음. • 어린이집을 돌 무렵부터 보냈고, 둘째 출산으로 2주 동안 아빠가 돌보았음.
외양 및 행동관찰	• 눈맞춤의 횟수가 적고 까치발을 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호명에도 선택적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냄. 언어적 표현을 나타내기는 하나 전달력이 낮으며 부정확한 발음을 보임. • 언어표현은 많으나 혼자 놀이에 집중함. 지시따르기가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언어표현 시 눈을 보지 않고 타인의 행동에는 관심이 적은 모습을 보임. • 놀이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놀이방법으로 똑같은 놀이를 반복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자신의 욕구에 따른 호불호가 강하며 선택적으로 따르는 모습과 질문에 대한 선택적 답변을 보임. 자신의 표현을 많이 하기는 하나 상호작용의 기능적 측면이 미비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부모]

1) K-CDI 검사결과:

- 전체 발달은 2년 9개월 수준으로 정상발달을 보이고 있음.
- 사회성은 2세 6개월의 지연, 자조행동 또한 2세 4개월로 지연을 보임.
- 대근육 운동은 2세 8개월 수준으로 경계로 나타남.
- 표현언어 또한 2세 2개월 수준으로 지연이며, 언어이해는 2년 7개월로 경계된 발달을 보이고 있음. 현재 3세 8개월의 수준으로 표현언어는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발달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일부 발달(사회성, 자조행동, 표현언어 등)이 연령 수준에 부적합한 발달을 보이고 있으며, 언어발달 및 사회성발달의 지연을 보임.
- 구체적으로 아동이 현재 사회적 장면에서 보이는 어려움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자극이 필요한 상황임.

2) K-TABS 검사결과:

- 고립행동, 과민감성, 과활동성, 조절행동에서 비전형 수준으로 나타남.
- TRI 전체점수 또한 99.9% 백분율을 보이고 있어 비전형 수준임.
- 아동이 현재 보이는 모습이 사회적 기대에 요구하는 상황과 동떨어지며, 특히 눈맞춤 발생 빈도가 낮아 인지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이 적으며, 자발적인 의사소통 시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감정조절과 관련하여 이를 다루는 데에 매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와 더불어 일부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적인 치료적(언어치료, 놀이치료, 또래집단치료 등) 접근이 필요함.

3) PCT 검사결과:

- 양육자는 아동의 발달에 매우 관심은 높으나, 유능감이 낮고, 불안감이 매우 높으며, 배우자의 양육참여는 매우 낮고 의견일치 및 반응성, 효율성 등이 보통으로 평가 되고 있음.
- 아동의 발달을 자극하기 위해 유대감을 높이고, 불안감을 다루며, 배우자의 양육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고, 환경 및 놀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교사와의 상호작용 및 원내활동 관찰 결과]

- 일부 행동에서 충동성이 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눈맞춤을 시도하자 아동은 수용을 잘하는 모습을 보임.
- 역할놀이를 제안하는 친구에게 다가가 손님 역할을 하는 등 놀이 자체의 질이 높지는 않으나 반응의 질이나 빈도가 매우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을 때의 예후가 좋을 것으로 평가됨.
- 또래 집단 또는 사회적 장면에서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언어치료/놀이치료 등을 통해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울 필요가 있음. 가정과 기관, 치료기관 모두 공동의 목표를 산정하여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사례
개념화

[가정 생활]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아동은 전반적인 발달이 느리고, 특히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충동 및 욕구 조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지시따르기가 어려움.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매우 관심이 높음.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아 앞으로 예후가 좋을 것으로 평가되어짐.
- 위험요인: 아동의 과도한 미디어 노출과 주의력의 불안정한 기질이 있음. 그러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보임.

[어린이집 생활]

1) 발달지원상담원이 본 아동의 문제

- 교실에서 자신의 욕구 충동이 어려움으로 순서대로 일과 따르기를 힘들어함. 타인 또는 선생님의 물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 갈등이 발생하고 하고, 기다리기를 어려워 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보임.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아동의 담임교사 및 현재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환경이 아동에게는 보호요인으로 작용됨. 만3세 연령대비 정원이 적으며 담임교사 또한 아동 및 보육하는 아동들에게 상호작용의 질 및 대처능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부모]

1. 발달검사를 통해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2.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아이에게서 나타난 발달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함.
3. 사회적 지지를 위한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함.

[교사]

1. 발달검사를 통해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2. 교실 내에서 아동에게 사회성 증진을 위한 상호작용 및 활동을 제공함.

상담성과

- 상담을 통하여 부모와 교사 모두 아동에 대한 현재 개별적 특징에 따른 발달 수준과 기질 특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됨.
- 특히 부모의 경우, 아동의 치료적 방향을 제안하여 가정 내에서 줄 수 있는 도움을 통해 미시적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치료 및 관련 기관에 다니며 아동의 개별적 지원을 통해 이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평가되어짐.

- 1:1 상황 및 1:다수(보육현장) 상황을 직접 비교하며 볼 수 있어 아동을 더욱 다각적인 시각에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었음. 이를 통해 담임교사가 아동을 이해하고 일과 내에서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방향과 아동에 대한 지도 방법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이름 쓰기



보호자 이름 쓰기

언어발달 지연, 사회성 부족, 돌발행동의 억제, 기관에서 기다리는 행동 등이 많이 어려워서 우리아이 양육하는데 있어 정확히 판단하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①비대면 상담, ②대면 놀이평가, ③대면 평가결과 상담 등 3번으로 나누어서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연계되어 2번 방문해서 우리아이 관찰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알려주셨고, 추후 전문가들 도움(센터에서 놀이수업 1번, 언어수업 1번)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도움 받고 싶고 다른 부모들도 도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린이집 이름 쓰기

아동을 관찰하기 전에 부모와 교사가 KCD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부모와 교사의 검사결과를 비교하면서 아동의 발달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아동이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발달이 빠른 영역과 느린 영역을 알 수 있어서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전문 상담사가 아동을 관찰하시고 아동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을 때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 또래와의 놀이, 부적절한 언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관찰 시에 아동이 문제 행동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알고 계셔서 교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다.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를 한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4개월 전과 비교하여 개선된 부분(교사와의 눈맞춤을 하며 의사소통하는 모습, 미술 놀이할 때에 친구가 와서 안아주었는데 화를 내지 않고 같이 안아주는 모습)에 대해서 알려 주고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 방안(문제 행동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기,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 등) 과 아동이 또래와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워해서 교사가 놀이 속에 개입하여 함께 놀이를 통해서 또래와의 놀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해주셨다. 또한, 추후에 보내주신 아동의 관찰 평가서에도 관찰자분께서 아동을 관찰한 부분, 면담 시에 이야기 해주신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좋았다.



17 행동이 더디고 주의집중이 어려운 아이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셋별(가명) (만5세, 여, 만2세부터 4년간 어린이집 재원)
사업신청 경 위	어린이집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교사의 질문과 맞지 않는 대답을 하여 부모님께 발달 상담을 안내 후 상담을 신청함.
주 호 소 문 제	- 교사 - 대집단 시, 집중하지 못함. 친구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마음대로 정리함. 양치할 때 치약을 짜서 먹는 행동을 함. - 부모 - 행동이 더디고 산만하며 음식조절이 되지 않음.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 부(44세) : 회사원. 유아의 주 양육자임.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며 아내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임. - 모(37세) : 두 가지의 일(two jobs)을 하며 유아의 부 양육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가지 일을 하며, 유아를 전적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남편에게 원망이 있음.
아동의 발달력	- 원에서 본 유아 발달력 - 만2-3세 : 윗도리가 젖을 정도로 침을 많이 흘림. - 연필을 잡는 모습이 버거워 보이며 부자연스러움. - 부모 보고 - 만 2세에 병원에서 사시가 약간 있다고 지켜보자고 했으며 올해 3월 사시 수술을 받았음. 그전까지 시야가 또렷하지 못했음. - 이외 특별히 문제는 없고 행동이 더디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외양 및 행동관찰	- 발달상담원 관찰 [외양적 관찰] 또래에 비해 과체중으로 보이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단정하지 않은 인상을 줌. [상호작용 관찰] 상담사를 처음 만났으나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먼저 다가와 말을 걸며 안김. 또래들의 꽃차카페 놀이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이나 행동으로 언어이해 및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임.

[또래 놀이 관찰] 친구들이 꽃차 메뉴를 만들며 차 판매를 준비하고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며,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보임. 친구들이 꽃차를 팔면 손님으로 오라고 했으나 대답하지 못함. 친구들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자리에 앉음.

■ 사례 : 또래 꽃차 놀이 대화 관찰

[또래] 어떤 꽃차를 팔까요?

[샷별(가명)] 뽕이요.

[또래] 꽃차만 팔아요.

[샷별(가명)](대답없음)

▶ 또래놀이에 상담사가 참여하여 함께 놀이 중이라 샷별(가명)에게 꽃차를 파는 곳임을 인지시키자 “꽃차요”라고 대답함. 어떤 꽃이 들어간 차를 마시고 싶은지 묻자 “꽃”이라고 대답함.

▶ 꽃차 종류나 가격, 또는 맛에 대한 평가와 인사 등의 언어표현 및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행동 관찰] 손 조작이 미숙하여 블록으로 만든 창고와 우유병, 트럭 등의 모형이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쉽게 부서짐. 용변을 본 후, 옷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치마가 속옷 안으로 들어가 있음)로 교실로 돌아옴.

선별검사 결과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대근육, 소근육, 인지, 언어, 사회성 영역의 추적검사를 필요, 몸무게와 체질량이 과체중 소견으로 나타남.

[KCD-R(모 보고)] 사회성 발달 2년 8개월의 발달 지연을 보임.

[K-CDX(부 보고)] 전체 발달 2년 7개월의 발달 지연으로 나타남.

사례 개념화

1) 담당자가 본 아동의 문제

[사회성 및 상호작용] 대그를 활동 시 집중하지 못하며 또래와의 확장 놀이가 어려움. 혼자 놀이를 자주 함. 눈맞춤이 적고, 상담사와의 블록놀이에서 함께 공유 또는 협력하며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적음.

[인지] 질문에 맞는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타인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주고받는 대화가 나이에 맞지 않음.

[정서] 놀이에서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경우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며(폭력적인 거친 행동은 아님)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 보임. 즉, 자신의 감정, 생각,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언어 또는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감정 표현이 부족함.

[자조] 용변 후 뒤처리를 잘하지 못하고, 정리정돈이 어려움.

사례
개념화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 유아를 사랑하는 부모
- 어린이집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
- 잠재력이 무궁한 유아의 탄력성
- 사람을 좋아하는 유아의 긍정 반응

• 위험요인

- 부모의 아동발달 및 양육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정밀 평가가 필요함을 판정받았으나 추적검사를 진행하지 않음.
- 양육자가 안일한 태도와 미온적인 대처 자세를 보임.
- 부부 갈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아동이 방치되는 환경에 노출됨.
- 부모와의 건강한 상호작용 및 놀이시간 부족으로 미디어에 장시간 노출됨.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1. 발달검사를 통한 정확한 발달지연을 부모에게 인지도시킴.
2. 부모상담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도움.
3. 빠른 시일에 병원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4. 본 센터 놀이치료를 지원하고,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 정보를 제공함.
5.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발달 놀이를 교육함.

상담성과

[1차 성과]

- 발달 검사를 실시하여 부모가 유아의 발달 상황을 인지함.
- 아내가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정서 지원함.
- 본 센터 놀이치료를 지원하고, 인지치료가 필요하여 치료기관을 안내함.
- 유아가 음식 조절이 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된 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음식 조절 방법 지도함.

[2차 성과]

- 병원 검사를 안내했으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놀이치료 중 놀이치료사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하고 ADHD 판정을 받음.

[3차 성과(사후관리)]

- 현재 약물 복용과 함께 놀이 및 인지치료를 계속 받는중임.
- 약물 복용 후 유아 행동의 차이점과 부작용은 현재 없음.
- 놀이치료에서 집중시간은 아직 짧으나 역할놀이에서 줄거리가 생김.
- 부모의 적극적 노력으로 미디어 노출에서 벗어남.

어린이집 이물 수기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만 2세 담임으로 어린이집 근무를 시작하여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셋별(가명)이도 안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 원에 만 2세부터 와서 지금은 만 5세가 된 사랑스러운 셋별(가명)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입니다. 셋별(가명)이의 순수함은 담임교사 외에 원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 3세가 된 셋별(가명)이를 보며 발달이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만 4세가 되었고,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에서 발달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발달검사를 말씀드렸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달이 조금 늦을 뿐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렇게 만 5세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발달지원서비스는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여 영유아 관찰 탐색과 평가 후 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하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5세인 셋별(가명)이도 발달지원을 받았고,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 놀이치료, 인지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니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셨고, 자연스럽게 센터로 연계될 수 있었습니다. 센터의 놀이치료 선생님이 셋별(가명)이를 보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ADHD 검사를 권하였고, 검사 결과 ADHD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에서 산만하기는 하지만 친구들을 힘들게 하거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아이는 아니었기에 ADHD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또 원에서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받은 후 셋별이 부모님이 아이의 발달에 대해 점검할 수 있고 양육코칭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다고 하십니다. 교사에게도 영유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도하면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좋았던 것은 영유아에게 사회, 정서, 인지, 행동적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도움을 받아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8 욕하고 때리는 아이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박OO (만5세, 남, 어린이집 재원)

사업신청
경 위

- 아동은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편한 상황에서 우는 소리를 내고 때리거나 욕하는 행동이 나타남. 이에 어린이집 권유를 받아 부모가 경기도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신청하게 됨.

주 호 소 문 제

1) 양육자(모)가 보고한 주 호 소 문 제

- 정서조절 및 표현의 어려움
 -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에 자주 화를 내고 울음(징징거리는 소리)으로 표현함.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정서조절 및 표현의 어려움을 보이고 갈등 시,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임.
- 생활 지도의 어려움
 - 어머니가 간단한 요구사항을 말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동은 들은 체 만체 하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임. 그러나 기분이 좋을 때는 양육자의 요구사항을 쉽게 수락하기도 함.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자녀의 욕아에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욕하는 성격으로 아단을 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생활 지도가 어려움.

2) 어린이집에서 보고한 주 호 소 문 제

- 단체 생활 참여 거부
 - 단체생활에 협조적이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전이활동(정리정돈 및 대집단 활동) 시, 교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하고 있던 놀이에 집중함. 친구, 교사의 소리에 흥미를 보이기도 하지만 참여하지는 않고 힐끗힐끗 쳐다봄.
- 정서조절 및 표현의 어려움
 - 또래와의 갈등상황이 잦고, 긴 시간 울거나 때리고 욕을 사용함. 아동이 진정한 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웃으며 도망가 거부하며 생활지도가 되지 않아 보육의 어려움이 있음.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1) 모

- 행동적 특성: 상담실에 경직된 표정으로 입실함. 자녀에게 애정은 많으나 애정표현이 서툴다고 표현함. 욕하는 성격으로 감정조절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자녀에게 심하게 화를 내거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고 보고함. 부모가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감정 기복이 심해 육아의 어려움이 있음. 유독 아동에게 화를 많이 내는 편이며, 자신을 가장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보고함.

- 환경적 특성: 회사 업무로 바빠 평일에는 자녀와 시간 보내기가 어렵고 어린이집에 오랜 시간 맡길 수밖에 없고, 주말에는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냄.

2) 부

- 회사 업무로 항상 바빠 자녀가 자고 있을 때 귀가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 거의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고, 직접 대면하여 보내는 시간은 한 달에 1~2번 정도 보는 편임.

3) 조모

- 손주를 대할 때 과하게 허용적인 편임. 두 식구가 모두 한 집에 거주했으나, 육아 가치관이 맞지 않아 분가하게 되었음. 아동은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좋아함. 할머니와 시간을 보낼 때, 스마트폰이나 TV 등 미디어를 노출이 잦음.

아동의 발달력

1) 임신 및 출산

- 계획된 임신이 아니라 임신 소식을 가족에게 알렸을 때, 가족 모두 놀랐다고 함. 부, 모는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움을 겪었음. 모는 나이가 어렸으나, 출산 당시 아이를 보고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웠다고 함. 출산예정일이 조금 지나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고 아동 건강은 양호한 편이었음.

2) 아동의 특성 및 발달

- 수유 및 식습관: 생후 6개월까지 모유 수유했으며, 이후에는 분유를 먹이면서 서서히 이유식을 시작함.
- 수면: 예민하지 않아 보채지 않고 숙면을 취함.
- 언어: 웅얼이 3개월, 첫 단어를 8개월(엄마)에 함.
- 걸기: 12개월쯤, 활동량이 많은 편이었음.
- 성격: 낯가림이 심했고, 현재 성격은 잘 웃고 화를 내거나 징징댐.

외양 및 행동관찰

- 아동 외양: 아동은 현재 팔, 다리가 마르고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임. 손이나 옷에 지저분한 것으로 보아 자기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아동 관찰: 상담실 안에 있는 놀이감을 바라보고 들어왔으며, 자동차에 시선을 둔 채 곧바로 놀이를 시작함. 원장님이 아동에게 설명하고 인사한 후 퇴실하려고 하는데, 아동은 호명에 반응하지 않고 원장님을 쳐다보거나 대답하지 않고 자동차 놀이에 집중함. 상담원이 내담 아동에게 인사하지만, 쳐다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점차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상담원에게 관심을 보이며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상호작용을 나누려고 시도함.

선별검사 결과

1) KCDR-R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발달상태 양호함. 다만 소근육 운동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자(모)는 아동이 '성장, 키, 몸무게가 표준치 이하이다.', '주의집중을 못하며 잘 경청하지 못한다.', '때를 쓰고 짜증을 낸다.', '과도하게 공격적이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등 과잉행동을 보인다.', '지나치게 수줍어한다.', '자주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또래 아동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를 문제 항목으로 보고하였음.

2) HTP 검사

- HTP 검사 시, 모든 그림에 5초를 넘기지 않고 그림을 다 그렸다고 표현하며 빨리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취함. 그림 자체의 해석은 어렵겠으나, 각 그림을 보고 간단한 질문을 통해 가족구성원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음.
- 집 그림의 질문에서 아빠를 제외하고 가족구성원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대답함. 집 공간에서 아빠와의 소통과 교류가 많지 않음을 나타냄. 또한,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밀압이 약한 것으로 보아,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보임.

사례 개념화

1) 발달자가 본 아동의 문제

- 아동의 양육환경은 어머니의 성격 특성 상 애정표현이 서툰고 엄격한 편으로, 아동의 감정을 충분히 어루만져주지 못하여 인정, 애정 욕구의 결핍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동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상황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 야단을 맞았던 것을 아동의 입장에서는 '관심'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강화되어 이러한 패턴이 아동에게 익숙해진 것으로 파악됨. 또한 양육자의 기분 상태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져, 정서조절 및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됨.
- 아동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여러 번 표현하며 상담 중 엄마에 대한 애정 욕구를 표출함. 불안정 애착, 그 중에서도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혼란애착 형성이 고려됨. 애정의 욕구가 높은 아동이나, 그 만큼 충족되는 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임.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가정-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협력적인 관계
- 위험요인: 불안정 애착형성,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

III. 상담지원 목표 및 성과

상담목표

1.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 횟수를 늘림.
2. 상담 장면 내에서 안정애착을 경험함.
3. 양육방식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도움.

상담성과

• 리포 형성 및 긴장 이완

- 첫 번째 놀이 관찰 및 평가 시, 낯선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원하는 놀잇감을 즉각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놀이하나, 단순 놀이를 주로 한. 아동이 하는 놀이를 상담원이 언어 반영하고 놀잇감을 매개로 관심을 보이자, 점차 상담원에 대한 경계를 풀고 긴장을 이완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기 시작함.

• 긍정적 상호작용 및 안정적인 애착 경험

- 자동차 놀이 중 서로 마주 보고 갈등 상황을 연출했으나, 충돌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안전하게 지나가는 상황을 연출함. 모래를 접촉하면서 상담원과 주고받는 놀이를 스스로 제안하고 손뼉 마주치기 등 신체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함. 또한, 모래 놀이를 할 때, 실천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니 이를 수용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상담원은 긍정적 행동을 찾아내 강화하고 확장시킴. 이에 아동은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놀이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

• 양육자 및 어린이집 협력 상담 진행

- 양육자(부, 모)는 바쁜 근무 환경으로 상담실 내방이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 가정과 어린이집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일정을 조율해가며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함. 아동의 발달력과 현재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돕는 상담을 진행하여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센터 내 놀이치료 연계

-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으로 센터 내 놀이치료로 연계하여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고 긍정적 자기 표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 진행 중에 있음.

• 가정 및 어린이집에서의 긍정적 변화

- 평소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했으나, 스스로 순서를 알고 기다리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함. 또한, 갈등 상황 시 욕을 하거나 때리는 행동 대신 언어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긍정적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하여 이러한 패턴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중이라고 함.





어린이집 이동 수기

OO은 1학기 중에 입소하여 주변 친구들의 머리나 배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를 제재하는 교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하거나, 흥분 상태를 보이며 울고 주변의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 의자를 넘어뜨리는 행동을 보여 아이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반 유아들도 위험하고, 담임교사로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관찰한 후 어머니, 아버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가정에서도 어머니께 동일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육아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머니 혼자 육아를 감당하는 상태에서 어머니도 문제를 인식하지만, 오히려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육아를 하고 있어 가정에서 악순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육아의 힘들음을 호소하고 있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오고 가는 동안 어머니와 아이 둘만의 기본 좋은 시간을 경험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도움이 되는 육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육아 고민에 대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경기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에서 아이와 어머니가 오고 가는 둘만의 시간과 상담 시간 동안 어른의 관심이 아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이에게는 기본 좋은 경험으로 기억되었는지 이후 아이는 상담 시간을 기다리는 듯 "상담 또 가고 싶어요." "언제가요? 지금 가요."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아이의 현재 문제행동의 원인을 알게 되고 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에 담임교사와 아이를 직·간접적으로 보육해야 하는 교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아이의 문제행동 교정에 신경 쓰기보다 아이가 좋은 애착을 형성할 수 있고, 인정받는 느낌을 알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상호작용에 신경 쓰고 기본 좋은 스킴을 자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센터 측에서 치료연계로 놀이치료를 제안해 주셔서 상담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에 천천히 가고 있지만 친구들과 놀이하는 시간 간혹 인정받았던 부분에서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이면 "내가 해줄까?" 하며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먼저 하지 않으면 튕겨 나가고 과잉행동으로 이어져 가던 행동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기다리면 모두 할 수 있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더 좋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해주는 것에도 신경 쓰고 있어서인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끝날 수 있는 상담이었지만 놀이치료로 연계하여 아이에게 시간을 더 배려해 주신 센터 측에 감사하며, 아이가 가정과 사회 안에서 적을해 가며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 친구와 어울리기가 어려워요(외국인 가정)!

I. 영유아 기본정보

인적사항

00 (남/ 만4세), 어린이집 재원 중, 외국인 가정

사업신청
경 위

- 아동의 모가 아동의 발달이 느린 것이 걱정이 되어 전반적인 발달상황을 체크해보기 위해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됨.

주요소 문제

- 전반적으로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림
 - 아직 배변훈련이 되지 않아 기저귀를 차고 있고, 언어발달도 느려 현재 한 단어 정도만 (또, 가, 등등)을 사용하고 있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아동은 영어를 더 편하게 사용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움
 - 어린이집에서 또래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주로 구석에서 혼자서 놀이함.
 - 또래활동으로 유도하면 잠깐 참여하기는 하나 이내 구석으로 가서 혼자 놀이를 함. 또래에 관심은 있으나 막상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활동에 참여하기가 힘들.

II. 신청아동의 이해

가족관계 등

부모(두 분 모두 외국인), 누나, 남동생

아동의 발달력

1) 임신 및 출산

- 임신 중 특이사항은 없었고, 출산 후 아동 건강은 양호한 편이었음.

2) 아동의 특성 및 발달

- 대체로 유순한 편으로 보치는 일이 별로 없었음.
- 모의 성격이 활발하고 쾌활한 편으로 적극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을 시도하였으나 아동의 반응이 적어 모가 이에 대해 의문이 들었음. 혹시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고 함.
- 언어: 자발어가 적고, 집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편안해함. 한국어 사용은 힘들어함.

외양 및
행동관찰

- 아동 관찰
 - 상담자가 제시하는 놀이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탑쌓기 등이 가능함. 공놀이도 선택적으로 가능함. 이후 상담자와 같이 했던 탑쌓기를 혼자한 후 house라고

외양 및 행동관찰

말함. 잘했다고 칭찬하면 좋아함. 하지만 얼굴의 표정은 다양하지 않음. 상담자와 상호작용가능하나 집중시간이 짧고 교실을 뛰어다니거나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많음. 상담사가 부르면 선택적으로 상담사에게 다가오기는 가능함.

• 모-아동놀이관찰:

- 모와 함께 있을 때 정서적 반응(얼굴표정, 옆에다가가 앉기, 무릎에 앉기 등)이 훨씬 활발하며, 모에게 먼저 자신이 만든 블록을 보여주기도 함. 언어표현도 많아짐(영어로 주로 의사소통을 함).

• 교사상담:

- 원내에서 선택적으로 놀이에 참여가능하나 집중시간이 짧고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행동이 자주 나타남.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음(가정에서는 모에게 대변표현은 한다고 함).

- 아동이 기질적으로 순한 편이라 원내 또래친구들이 아동을 좋아하고 잘 챙겨준다고 함. 혼자서 못하는 것을 또래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일이 많다고 함.

- 올 3월부터 어린이집에 본격적으로 등원하기 시작함(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꾸준히 등원하지 않았음). 올해 꾸준히 등원하면서 또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증가하는 등 많은 발달이 이루어졌음.

- 불편한 것을 주로 소리지르는 것으로 표현함. 불안해지거나 낯선 상황에서도 소리를 지름으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음.

선별검사 결과

• K-CDI 검사결과: 전체 발달이 경계선이하(지연)범위로 나타남.

• K-CARS-2-ST 검사결과: 원점수 26.5로 증상이 없거나 최소한의 자폐 관련 행동으로 나타남.

사례 개념화

1) 담당자가 본 아동의 문제

• 현재 아동은 전반적으로 발달지연이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 아동으로 한국어 습득이 잘 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아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보호요인:

- 모가 적극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에 필요한 경험과 자극을 제공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있음.

- 원장님과 담임교사가 아동에 대해 관심이 높음.

- 또래 친구들이 아동에게 호의적인 태도임.

• 위험요인:

- 아동의 발달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또래와 발달상의 격차를 줄이는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불안이 높고 주변 환경에 민감한 기질이 있어 발달에 필요한 자극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III. 발달지원 목표 및 성과

발달목표

1. 현재 아동은 발달지연을 나타내고 있어 발달의 격차를 줄일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적인 개입을 실시함.
2. 모가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아이와 상호작용하고 있어 가정에서 이러한 양육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코칭을 제공함.

발달성과

- 모가 아동의 현재 발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자극을 가정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발달에 필요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아동에게 적합한 교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업 후기

사업 담당자 후기

부모가 외국인으로 한국 유학중 결혼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녀 양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사례였다. 외국인이라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지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아이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고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중 다문화가정의 자녀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가정의 자녀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였다.

특히 자녀양육에서의 언어발달과 관련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주로 부가 한국인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짐으로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사이 가정에서는 외국인인 모가 한국 적응도 채 하기 전에 아이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다양한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모의 정서적 우울이나 양육효능감 저하 등... 이로 인해 아동의 발달지연 특히 언어발달지연과 정서적 불안 위축 등의 어려움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어려움인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다문화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원초적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된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래도 다행이라는 마음이다.





사례집 제작에 도움을 준 센터



-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경기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경기도센터	031)258-1485	부천센터	032)322-8686	오산센터	031)374-5563
경기북부센터	031)876-5767	성남센터	031)721-1640	용인센터	031)335-8690
가평센터	031)8078-8100	수원센터	031)255-5682	의왕센터	031)455-1853
고양센터	031)975-3314	수원동부센터	031)273-6690	의정부센터	031)853-5006
과천센터	02)6925-2526	시흥센터	031)431-5682	이천센터	031)634-9842
광명센터	02)899-0163	안산센터	031)415-2271	파주센터	031)954-4800
광주센터	031)765-6010	안성센터	031)676-2991	평택센터	031)692-7705
구리센터	031)566-2323	안양센터	031)383-5170	포천센터	031)536-9632
군포센터	031)393-0236	양주센터	031)868-0200	하남센터	031)796-6579
김포센터	031)985-1901	양평센터	031)773-2331	화성센터	031)8059-1640
남양주센터	031)528-4463	여주센터	031)883-2019		

2022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운영 사례집

기획·총괄 홍원자(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편 집 김다름(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팀장)
정은혜(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지원상담원)

감 수 김은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원)

2022년 12월 인쇄

2022년 12월 발행

(초판)

발행처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발행인 홍원자

주 소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전 화 031-258-1485

(재판)

발행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발행인 홍은주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번길 2, 2층

전 화 031-692-7705

※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